

남해 금산 등산기

20011173 최문관

남해 금산의 보리암을 오르기 위해 아침 일찍 산행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내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초행길이면 어떻게든 미지의 정상상을 향해 올라가겠는데, 한번 올라가 봤기 때문일까, 나는 더욱 지레 겁을 먹었다. 전날의 숙취도 한 몫 하였다. 그래도 한번 올랐기 때문일까 다시 한 번 정상상의 기쁨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산의 초입에는 항상 나무들이 세상의 경계를 지어주고 있다. 이제부터 산의 시작이니 삶의 무거운 짐일랑 자신에게 얹어 놓고 가라고 한다. 친절하게 어느 산에나 나무들이 제일 처음 산을 반긴다. 나무들의 환영을 받으며 보리암의 정상상을 향해 한발 내딛었다. 그리고 한발 한발 내딛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오르면 산의 정상에 도착하겠지.”

산의 초입을 지나면 시끄럽게 들리던 사람의 소리도 조용해진다.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친구들도 힘이 들어서인지 말이 없다. 이때부터 들리는 소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바람소리,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담은 발자국 소리뿐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힘겨움을 참고 한발 한발 걸으며 곁에 있는 사람과 조용한 산을 올랐다.

산의 중턱에 왔을 때 조그마한 쉼터가 나왔다. 빈 의자와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돌무덤과 돌탑들이 빈공간의 여유로움과 짝 들어찬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머리고, 채워야 할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웬지 이곳에서는 머리를 써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까. 머리 굴리지 않고 열심히 한발 한발 오른 결과 산의 정상에 올랐다.

금산의 정상은 다른 여느 산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주위의 봉우리가 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금산의 돌산은 지금까지의 산봉우리의 부드러움을 깨고 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다. 반면에 금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부드러운 곡선의 봉우리가 몇 겹으로 겹쳐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봉우리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구름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지금까지 산을 오르며 겪은 고통이 싹 씻어 내려갔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가슴속의 무언가가 침체되었던 무언가가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정상에서 느꼈던 감흥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펜을 들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금산의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남해 금산은 모두 가지고 있다.

의 암

20031167 지연주

네 개의 꽃신이 돌계단을 오를 때
망국의 한 맺힌 눈물도 따라 올랐다
남강 물결위로 태양이 오를 때
님 향한 굳은 마음도 하늘로 올랐다

숨죽인 강물은 고요하기만 한데
부처님 뜻은 알 수 없어
돌고 돌아 돌아온 곳
수백 년 후의 붉은 처녀 이 길 다시 오르네

떨어진 것은
한 송이 청춘 이었는가
바위 같은 절개였는가
노을빛 담은 한줄기 눈물

떨
어
지
네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71102 고희민

1학년으로서 선후배와 교수님과 같이 가는 첫 번째 행사였다. 한국문학탐방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뜻 깊은 장소였을 것이다.

집이 춘천이 아니면서 기숙사와 자취를 하지 않는 나는 춘천에서 화요일부터 있었다. 동기의 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한국문학탐방에 대한 기대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여 경상도까지 가는 일부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간 곳이 최치원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합천 해인사 홍류문에 갔다. 버스 휴게소를 들르며 쉬다가 간 첫 번째 곳이기엔 기억에 더욱 남아있는 곳이다. 문학탐방과제를 최치원의 관련유적을 하면서 선생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상태이기엔 문학탐방 발표를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었다. 홍류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장소로 출발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조식 선생의 산천재를 갔다. 그 곳은 강과 도로 사이에 있는 곳이었다. <제덕산계정주>와 <유두류록>의 작품을 들으면서 조식 선생의 향취를 느꼈다. 또 그곳에는 '남명매'라는 440년 동안 산 매화나무가 서있어 더욱 향취를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다음으로 간 곳은 단속사로 올라가는 길에 석탑과 집들이 있었고 단속사는 그리 큰 곳이 아니었다. '정당매비'가 있는 곳에서 발표를 했다. 산 아래 집과 같이 있는 단속사는 자연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동하게 된 곳이 진주성이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싸우던 곳으로 변영로 시인의 '논개'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축석루에서 본 강가는 감탄만 나올 뿐 이었다. 첫 날 마지막 일정인 이형기 시인의 '낙화'시비가 있는 신안동 녹지공원을 갔다. 하지만 유명한 시인에 비해 시비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만 졌다.

두 번째 날 새벽 6시에 금산에 있는 보리암을 등반을 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보리암에 올라가서 본 남해안과 금산은 '올라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성복 시인의 <남해 금산>은 시가 나올 만한 장소인거 같았다. 아침을 먹고 간 곳이 노도 김만중 유배지이다. 금산을 갔다 온 뒤 지친 몸을 이끌고 김만중 선생의 허묘를 올라갔는데 정말 허묘라는 이름처럼 초라했다. 허묘에서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산 집을 갔다. 그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장소여서 유배를 온 김만중의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박재삼 시인의 시비가 있는 노산공원을 갔다. 노산공원에서 듣게 된 <천년의 바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억에서>를 생각하게 되었다. 노산공원을 간 뒤 김동리가 <등신불>을 쓴 다솔사에 갔다. 다솔사에 있으면서 등신불이 있을 것만 같았다.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세병관을 찾아갔다. <김약국의 딸들>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세병관의 웅장함에 이런 곳이면 소설의 배경이 나와도 무리가 없을 듯 했다. 들쭉날 마지막 일정인 유치환의 <행복>시비가 있는 '통영중앙우체국'을 갔다. 탐방 과제를 발표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체국 뒤에서 발표를 하였다.

세 번째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산도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탔다.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안 가본 한산도를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순신 장군의 영정도 보고 <한산도가>를 들으면서 한산도는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간 곳이 청마 유치환의 문학관이었다. 그 곳은 청마의 생가를 복원 한 곳은 통영 시내가 훤히 보였다. 남망산에

올라가서 김춘수 시인에 대한 발표를 들었지만 김춘수 시인의 생각을 가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점심까지 먹고 최인훈의 <광장>의 배경이 되는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갔다. 포로수용소는 6·25의 참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전쟁포로라는 신분에서 제3국으로 간 이명준의 고민이 느껴졌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해금강을 가야 했지만, 휴게소에서 잠시 쉬던 장소가 해금강인 줄 모르고 해금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쳤다. 대신 구조라해수욕장을 가서 바닷가를 풍경으로 잠시 휴식을 하며 놀았다. 문학탐방에서 처음으로 간 바닷가여서 그런지 그 곳에서는 모두 힘든 줄도 모르고 재밌게 놀았다.

마지막 날인 만큼 일정이 뻘뻘하지는 않았다. 김해 김씨의 선조인 김수로왕이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만큼의 신화가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다는 걸 느꼈다. 김종직 선생을 모시는 예림서원을 가서는 일정으로 인해 바쁘게 발표만 하고 출발을 했다. 하지만 표충사 대신에 밀양의 영남루를 가서 자유시간을 가지고 사진도 찍으면서 마지막 일정의 기쁨을 느꼈다.

3박 4일의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 만큼 얻은 것도 있었다. 잘 알지 못하던 작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경상도의 많은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추억도 많이 생겼다.

통영을 지나며

20001011 김성두

통영을 지나며

이 곳 통영을 지날 때는
바다를 향해 한번만 敬畏를 가져보자
한산도 深海에
忠情을 향한 충무공의 嗚咽이 남아 있다

이 곳 통영을 지날 때는
산을 향해 한번만 熱情을 가져보자
남망산 언덕에
熱愛를 향한 청마의 한탄이 남아있다

내 발에 부딪는 돌 하나에도
내 발을 적시는 풀 한 포기에도
시공을 초월한 초연이 묻어난다

이 곳 통영을 지날 때

세상은 그들을 원한다~

20071103 권오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저 산을 바라보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자연을 닮고 싶어서 속세가 싫어서
산에 숨어버린 그....

1000년이란 긴 시간을 넘어서...
그의 유적들은 남았지만..
그의 사상과 정신은 잊혀가고..
그걸 실천하고 지키는 이 하나없는
썩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우리는 다시..
이세상은 다시.. 현자를 원한다.

아름다웠던 3박4일의 추억

20071105 김미라

아침에 부는 바람이 참 싱그러웠던 4월 4일 경상남도로 한국문학탐방을 떠났습니다. 전 날 밤 떨리던 맘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날 해인사 홍류문에 들러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를 하신 분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발표내용보다 옆에서 들리는 계곡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시 속에서 말하던 소리를 직접 듣게 되니 제가야산독서당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간 곳은 제가 조사를 했던 조식 관련 유적지 산천재 이었습니다. 산천재 앞뜰에 있는 남명매를 보았습니다. 이 때 쫓가면 매화꽃이 피어 있을 꺼라 생각했는데 꽃은 벌써 졌더군요. 남명매를 보니 웬지 산천재에 있었을 조식선생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매화향기를 맡으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계셨겠죠? 진주성에 도착해서는 의암위에서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 말로만 듣고 글로 읽기만 했던 논개의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주변을 좀 더 살펴보게 되었고 강물에 떠 있는 배를 보니 남강에 있는 논개의 혼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신안동 녹지공원에 있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시비에 찾아갔는데 처음 든 생각은 이 시비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가였습니다. 이 시비가 왜 아파트 앞에 전시물처럼 서 있어야하는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보리암 등반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반하지 못하였고 숙소 옆에 있는 벚꽃나무에서 꽃놀이라고 할까요? 춘천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벚꽃에 신이나 동기들과 추억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보았다고 한 보리암에서의 바다는 보지 못하였지만 또 다른 추억거리를 만들어 나름대로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배를 타고 노도로 향했는데 그렇게 바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배는 처음으로 타 본거라 저도 모르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노도라는 섬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탐방을 다녀온 후 가장 맘에 들었던 곳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도 이 노도를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웠고 노도에서 불어오던 바닷바람과 한 노부부가 받을 일구던 모습은 한동안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김만중의 유배지 보다는 노도라는 섬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노산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리가 등신불이라는 소설을 쓴 다솔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소설 속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실제로 김동리가 작품의 소재를 마련한 곳은 다솔사라고 합니다. 다솔사는 웬지 모르게 정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큰 절 같지는 않았지만 다솔사만의 매력을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목탁소리도 향의 냄새도 제 마음을 정화 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뽐뽐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통영에 도착하여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중 하나인 세병관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커서 놀라웠고 통영초교의 교사로 사용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탐방에서 돌아와 김약국의 딸들은 다시 한 번 읽게 되었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머리 속에서도 그 배경들이 정리되어 탐방을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통영중앙동우체국에 들러 유치환의 사랑과 그의 시 행복에 대한 발표를 듣고 그가 이영도를 사모하며 그녀에게 편지를 부치고 어디서 지켜보고 하였는지를 알게 되었

습니다. 지금은 그 주변이 많이 변화였지만 유치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여객선을 타고 한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배 시간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만 제승당 가는 길에 보았던 매화꽃 길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객선 안에서 한 할아버지를 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며 한산도 바다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지만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이순신장군과 한산도대첩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책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느끼는 제가 가슴으로 느끼시는 할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거제 포로수용소에 들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광장을 읽으며 이 포로수용소를 어떻게 그려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곳에 가보니 제가 생각 했던 모습과 꽤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이곳에서 일어난 폭동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동감 있게 모습들이 재연되어 있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명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명준이 제3국을 택한 이유가 저랑은 매우 다르지만 말입니다. 포로수용소를 떠나 해금강에 도착하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금강인지도 몰라 해금강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탐방의 마지막 날인 넷째 날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쳐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정은 남아있었고 처음으로 김해의 수로왕비릉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김해 김씨이면서도 김해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선조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것 역시 머리로만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지봉 이라 하여 저는 매우 높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작은 언덕이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고 구지봉석도 생각보다 초라하여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와보길 잘했다 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김종직의 생가였습니다. 생가 옆에 있던 느티나무가 우람하여 느티나무를 통해 생가의 모습을 연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탐방에서 돌아 온 직후엔 피곤함과 힘들었던 일들만 떠올라 다시는 탐방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이번 탐방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배님들도 탐방을 가시는 것은 아닐 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3박4일의 수업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20041180 진희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이 가까워진다

어느새
초록 옷, 하얀 옷, 분홍 옷, 노란 옷으로
갈아입은 풀잎들이 나를 반겨준다

친구마냥 어깨동무한 나무들은
나에게 어서 오라
손짓 한다

헉헉
숨이 찬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머리 위 구름 속을
보기 위해

온 세상이
내 소유인냥

그저 기분이 좋다.

한국문학탐방

20071107 김보민

한국문학 탐방은 국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로 다녀 온 탐방이다. 경상도 지역을 거의 다 돌아다니는 코스라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았다. 그래서 더 기대감이 컸고 설렘이었다.

차안에서 먼저 첫째날의 코스를 보았다. 뽕뽕한 일정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첫째날이라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먼저 출발해서 도착한 곳은 해인사였다. 그리고 홍류문으로 가서 발표를 듣고 난 후 밑으로 내려가니 계곡 같은 게 있어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중식을 먹고 산천재, 덕산서원, 단속사를 관람하였다. 단속사에서는 대신 내가 발표하기도해서 더 기억에 남았다. 그 다음 진주성으로 갔다.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강도 있고 오늘의 코스 중에 가장 멋진 곳이었다. 그리고 신양동 녹지 공원에 가서 이형기의 [낙화] 시비를 보며 발표를 듣고 숙소로 향했다.

둘째날은 보리암 등반이 있었다. 참여할 사람만해서 난 가진 않았지만 사진 찍어 온 것을 구경하니깐 굉장히 멋있었다. 아침을 먹고 김만중유배지로 갔다. 배를 타고 들어가 더 재미있었다. 그런데 유배지여서 그런지 좀 높은 곳에 있어서 힘들었다. 그리고 사천시 노산공원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도 계단이 많았다. 둘째날 코스는 첫째날에 비해 힘들었다.

발표 후 다솔사에 도착해 발표를 듣고 통영으로 갔다. 세병관을 관람하고 통영중앙동우체국을 가서 유지환[행복]시비를 보고 난 후 숙소에 도착했다. 첫째날보다 힘들어서 바로 잠이 들었다.

셋째날 배를 타고 한산도에 갔다. 제승당에 가는데 역시 깊숙이 있기도 했고 배 시간 때문에 빨리 보고 나와야 해서 아쉬웠다. 한군데에서 좀 오래 관람하고 쉬며 즐겼으면 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청마 문학관에 갔다.

그리고 남망산을 관람하고 거제도포수용소에 갔다. 거제도포수용소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듣는 게 많아서 꽤 유익한 것 같았다. 그리고 해금강을 가고 해수욕장가서 좀 여유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도 많이 찍고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이 닭싸움 하는 것 구경도 하였는데 재미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오랜만에 왔단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여서 그런지 저녁은 A코스였다. 배고파서 보쌈을 엄청 빠르게 먹은 것 같다. 이 날의 저녁이 선배들과도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마지막날, 통영을 출발해 김해에 도착했다. 수로왕릉은 그냥 차안에서보고 갔고 구지봉으로 갔다. 돌이 있었고, [구지가]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증거물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느낌이었다. 발표를 듣고 예림서원에 도착했다. 좀 구경하고 김종직 생가를 보고난 후 점심을 먹고 표충사 대신에 다른 곳을 간 후 집으로 출발했다.

정말 선배들이 전에 말한대로 차탄 기억이 제일 많이 나긴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탐방이었던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일정이 뽕뽕해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다음엔 한 곳에 시간을 좀 주고 일정을 좀만 줄였으면 한다. 재밌는 탐방이었다.

하 여 가

-제승당에서

20001311 함경식

그대의 시 한수는
수백 년이 지난
갯벌도
아닌 곳에서
부서지지도 않는
파도마냥
털게의 거품처럼
부글부글 거리는구나

장부의 부푼 꿈을
뉘라서
알아주라마는
한산앞바다 어부들만은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그대의 무용담과 위용은
먼 옛 이야기 되어
할퀴고 지나간 파도 자욱보다
쉬이 잊혀진다는 것을
어찌하여
그대만 모르는 것인가

성난 허리춤의 칼로
그대의 허기진 충성심을
잘라내어도
그만하면 좋았을 것을

보리암을 다녀와서...

20041502 강유미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3박4일간의 일정 중 나의 머릿속에는 보리암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아침 일찍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산을 오를수록 난 후회했다. 말은 점점 줄어들고 걷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어느새 땀도 흐르고 있었다. 원래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보리암에 오르기로 결정한 것조차 의외의 일이다. 그래도 답사까지 왔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었다. 올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나와는 반대로 산속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산속뿐만 아니라 보리암에서 보이는 바다도 고요했다.

산을 오를 때와 오르고 나서의 기분은 전혀 달랐다. 오를 때는 힘든 생각뿐이었는데 더 높이 오를수록 상쾌해지는 기분이었다.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마을과 바다, 그리고 그밖에 경치들은 누가 그 곳에 그려 놓은 것 같이 아름다웠다. 아래에서 볼 땐 매우 커보였던 나무들도 위에서 바라볼 때는 손으로 잡힐 듯했다.

이러한 경치들을 보고 있으니 올라오면서 후회했던 내 모습이 사라졌다. 사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에 시끄럽게 울려대는 핸드폰 알람 소리를 듣고 산을 오를까 말까 몇 번이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산을 오르고 나니 가지 않았다면 분명 후회했을 것이다.

어느새 도움을 주고받으며 힘겹게 보리암을 올랐다. 처음에 간 곳이 정상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사실 그 곳에 도착 했을 때 난 많이 지쳐있어서 정상까지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로 정상을 가게 되었다. 정상에 오르자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은 고요했다. 사람도 없었고 그저 내 귓가에 세찬 바람 소리만이 들리고 있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아래로 보이는 풍경들을 보니 감탄사 외에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와 함께 온 사람들도 감탄사만을 연달아 내뱉을 뿐 별다른 표현을 하지 못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곳에서 우리는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담고 있었을까.

살아오면서 난 정상에 오른 적이라곤 손에 꼽힐 만큼 없다. 지금까지 정상에 올랐을 때는 그저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만이 들었었지 별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보리암 정상에 올랐을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를 알았고, 처음으로 내가 세상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처음으로 산이 바다에 빠져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았다.

보리암. 이제 이 세 글자만 들어도 그 때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잊혀지지 않는다. 힘들게 올라간 탓인지 아니면 멋진 풍경을 보고 와서인지 내려오는 길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매번 찾아오는 봄이었지만 이번 봄은 답사 덕분에 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봄이다. 봄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이번 탐방을 통해 새삼 느꼈다.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41182 최세나

힘들었던 일정과 갑작스런 장염으로 인한 몸 상태 악화까지 이번 탐방은 나에게 많은 원망을 남기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좋았다’라는 말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상남도에서의 올 해 졸업을 앞둔 사랑하는 동기들과 연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은 오랜 여운을 남길 듯하다.

탐방의 본 목적을 잊은 것은 아니다. 국문학도로서 답사를 통하여 많은 문학작품과 위인들을 접하는 일 또한 뿌듯하지만 아직 놀기 좋아하는 학생인지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냥 감사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하늘과 벚꽃, 바다. 남해의 바다냄새는 그 곳을 잊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듯하다. 이리도 좋은 곳에 사셨으니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좋은 문학작품들을 남기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둘째 날 새벽, 가벼운 마음으로 보리암 등산에 나섰지만 아,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이 산에 갇혀서 못 내려올 것 같다는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원체 등산을 못하는지라 힘이 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운동을 안 해도 너무 안했나 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지만 마음을 다 잡고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할 말을 잃었다. 사람들이 이런 맛에 등산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이런 절경을 살면서 몇 번 볼 수 있을까 하는 감탄까지. 보리암 등산은 나에게 쓴 약과 같았다. 이번 탐방에서 가장 좋았던 곳을 뽑으라면 난 보리암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보리암까지 다녀오고 신이 날대로 났어야 했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눈물 많은 나는 그 먼 경상남도에서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들렀다. 통영까지 와서 주사까지 맞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으련만, 빨리 나아서 남은 일정 즐겁게 지내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아픈 나 챙기느라 고생한 남자친구며 동기들, 언니들 너무너무 고맙다. 고열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나 때문에 새벽 내내 찬물찜질 해 준 사랑하는 동기들, 절대 잊지 못할 거다.

3박 4일 내내 바다는 정말 징그럽도록 본 것 같다. 그래도 바다는 봐도 봐도 좋구나. 바다를 항상 품에 안고 사는 이 곳 사람들은 바다가 좋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남해 못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춘천에 살고 있는 나는 춘천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 빠빠한 일정들로 인하여 빨리 집에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해를 떠나 올 때는 아쉬운 마음뿐이었다. 역시 사람 마음이란 알 수가 없다.

2007년, 남해의 따뜻한 봄. 아마도 내가 이 시절을 추억하는 한, 내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될 한국문학탐방이었다. 그리 오래지 않아, 또 볼 수 있을 거라 기약하며 안녕.

다술사

20071109 김선헌

나는 평소 문학작품을 읽으며 생각한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런 궁금증을 한국문학탐방에서 풀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학탐방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하나 얻은 것이 있다. 지금도 그 꿈을 완벽하게 접지는 못했지만,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땐 내 그림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다. 실물처럼, 사진기보다 더 자세히 나타내고 싶었고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 하나마다 내 감정을 싣고 싶었다. 이러한 감정처럼 탐방을 다녀온 뒤 내가 쓰는 문장에 대한 애착감이 더 커졌다. 난 나의 이 두 가지 수확이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홍류문에서 최치원의 산중에 은둔하고 싶었던 마음을, 의암에서는 변영로 시인이 느꼈을 논개의 마음을, 노도에서는 유배생활 중인 김만중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술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소설 '등신불'을 읽으며 김동리가 어느 절에서 이 소설을 썼는지 너무 궁금했었다. 크고 화려한 그런 절을 상상했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다술사는 정말 아담한 절이었다. 그 아담함 속에 무언가 말로 설명하지 못할 기품도 서려있었다. 나는 다술사에 도착하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절에서 '등신불'이 탄생하였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읽었을 때의 '등신불' 배경과 다술사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다술사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너무 '등신불'에 나오는 불상이나 모습을 나타내어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절의 기능은 완벽하게 하는 것 같다. 일제 시대 이 절에서 한용운 선생이 은거 생활을 했다고 한다. 마음이 편치 않는 은거 생활이었겠지만, 다술사에서 느끼는 이런 느낌은 나쁜 아니라 한용운 선생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제시대가 아닌 다른 민족의 아픔이 없는 시대에 한용운 선생이 이 절에 왔다면 그분은 어떤 작품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너무 바쁠 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있고는 한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다. 그렇게 숨어있어도 마음의 평온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마음의 평온을,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탐방 중에 느낄 수 있어 나조차 놀라웠다. 나에게 마음의 평온을 준 다술사를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비단으로 두른 산, 금산*

20011129 백동호

흙을 밟아 본 적이 언제인가?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검은 타이어 자국을 그으며 창밖으로 세상을 스쳐 지나 볼 뿐 지면위에 내 발자국을 남기며 주변을 바라 본적이 언제였단 말인가? 자동차가 내뿜는 탁한 매연, 타들어가는 담뱃재의 뭉실 연기, 거칠게 내뿜는 우리의 이산화탄소, 한 공간을 가득 메우는 온갖 공기들이 도심 속에 내가 서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누가 말을 했던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흙을 밟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해온 우리의 귀차니즘은 자연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거리감은 서서히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과 흙이 가져다주는 편안함 그리고 나무가 주는 안락함에 대해 잊게 해주었다. 그렇게 잊혀지고 무더진 주변의 자연 속으로 어느 날 내 발자국을 새기게 되었다.

새벽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녘에 보리암 등반이라는 이유로 숙소에서 나왔다. 몸에는 아직 시큼한 알코올 냄새와 쾌쾌한 담배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보리암 등반의 첫 코스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흙을 밟아 보는 건가? 새벽 공기는 시원했지만 금산 입구의 아스팔트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위한 건물들은 내 발걸음을 익숙하게 해주었다. 익숙한 발걸음 위로 보이지 않는 금산의 정상은 젖힌 고개 뒤로 한숨만을 내뿜게 했다. 한림대학교 학관에서 공대 건물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길이 힘들다고 말하던 우리에게 금산의 언덕길은 절망의 대상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새벽공기의 시원함에 힘을 얻어 힘차게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어 보았다.

10분쯤 걸어 올라가니 숨이 차오르고 있었다. 고작 10분을 올랐을 뿐인데 숨은 거칠어지고 주변에는 익숙한 아스팔트와 건물들의 흔적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산과 나무와 흙에 둘러싸여 늘 지배하던 자연에게 내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건 온통 작고 큰 나무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건 먼지를 일으키는 황토색의 흙이요, 그리고 나의 귀에 울리는 건 지지배배 울어대는 어색한 새소리들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낯설음이 웬지 나쁘지 않은, 어색하지만 웬지 편안한 그런 느낌에 감싸여 저 위로 내딛는 발걸음을 한걸 가볍게 해주었다. 알코올 냄새와 담배 냄새를 내뿜던 거칠던 내 호흡들은 공기 중에 흩어져 중화가 된 듯 떨어지는 땀방울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작은 내 자취방 속에선 이 도심의 냄새들을 없애려면 페브리즈라는 또 다른 문명의 향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곳에선 단지 호흡을 통해서 모든 냄새들을 날려 보내는 기분이었다. 그로 인해 바람 한 점 불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꼈다면 이해할까? 그저 단지 산속의 나무 밑에서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로 인해 어제의 어지러움을 잊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원함이 아닌 머릿속과 가슴속으로부터 느껴지는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호흡의 공감이 컸는지 나무의 가지는 산을 오르는 내게 손잡이가 되어주고 가파른 언덕길에서 그들의 뿌리들은 튼튼한 계단이 되어 나를 위로 이끌어 주었다.

그렇게 금산을 오르다 보면 곳곳에서 사람들의 손길들을 엿 볼 수가 있다. 금산의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쉴 벤치를 만들어 놓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터를 이용해서 자연 속 문학기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았다. 지친 사람들에게 앉을 곳을 마련해주면서 그 앞에 길고 짧은 시

들을 전시 해 놓은 것이다. 잠깐의 휴식 동안 가지는 한편의 시는 일정한 리듬의 호흡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이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문명이고 자연을 이용하는 우리의 옳은 모습이 아닐까? 자연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장점을 살리며 한편으론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것이 자연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

산 중턱쯤에 이르면 드문드문 보였던 사람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산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거칠함을 보여준다고 할까? 경사는 높아지고 길은 좀 더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유일하게 등산을 도와주는 것들은 긴 로프가 아닌 묵직한 나뭇가지와 큰 뿌리들 그리고 층층이 쌓여진 돌들뿐이다. 어쩌면 우거진 수풀들과 바위들 사이에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문을 떠나 새로운 세계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분. 전혀 낯설고 포장되어 있지 않기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길 뒤에 존재할 새로운 모습들의 환상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기에 호기심을 자극 하는 듯하다. 그렇게 30분쯤을 오르면 이제 딱 절반의 등산을 한 셈이다. 뒤로 돌아보아도 아래는 보이지 않고 위를 올려다 보아도 커다란 바위와 나무만 보일뿐 더 앞을 내다 볼 수는 없다. 오직 지금 현재의 내 위치만을 확인 할 뿐이다. 보통 산을 오르지 않던 우리에게 30분의 등산은 처음의 상쾌함을 잊고 흔들리는 두 다리와 요동치는 심장을 통해 힘들다고 느끼게 해준다. 서서히 갈증을 느끼고 일루션의 오아시스를 꿈꿀 때쯤이면 중턱에서 약수터는 아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돗가를 볼 수 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은색 수도꼭지가 아닌 거북이 모양을 한 석공품을 통해 한껏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 그리고 마시는 한 바가지의 물은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 논밭에 내리는 빗줄기처럼 신의 축복이 되어 마른 내 목을 달래준다. 그 청량함은 운동 후 마시는 게토레이나 햄버거와 함께 마시는 콜라 보단 더욱 시원했던 것 같다. 그 시원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다면 금산의 중턱에 올라와 이 물을 마셔 보라 권하고 싶다.

신의 축복을 느껴 보았다면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정상으로 향해야 한다. 중턱을 지나면 거칠어진 길들로 인해 괜히 올라왔다면 힘들다면 투덜댈 수 있지만 딱 20분후에 앞에 놓일 절경 앞에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등산을 시작한지 약 50분 눈앞에 커다란 두 개의 문이 보이게 된다. 단지 그거 하나만 보아도 이 등산이 후회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아래서 보았을 때 큰 나무들이 꼭꼭 숨겨서 감춰 두었던 것이 바로 이 광경일까? 눈앞에 펼쳐진 쌍홍문이라는 커다란 동굴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찍기 버튼을 누르게 한다. 쌍홍문 앞에는 장군봉이라는 제법 유명한 큰 바위가 있지만 이 쌍홍문의 인기에 밀리는 듯 했다. 쌍홍문은 바로 정상 아래에 위치한 보리암을 가기 위한 입구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문의 형식이 아닌 큰 두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쌍홍문에서 잠시 뒤로 돌아 걸어온 내 발자국을 돌아보면 남해의 바다와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이루는 절경을 한 눈에 바라 볼 수가 있다. 쌍홍문에 들어서면 마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이 공간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연출된다. 커다란 구멍사이로 내뿜어지는 바람의 힘은 이곳까지 올라오며 맺혀진 이마의 땀방울들을 모두 날려준다. 이 쌍홍문을 어찌 보면 큰 해골의 두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커다란 콧구멍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절경을 연출하고 있기에 이 문을 지나 뒤에 존재하고 있을 관경들에 대해 더욱 기대를 가지게 한다.

쌍홍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목적지인 보리암이 보이게 된다. 보리암은 이곳에 위치한 절인 것이다. 이 보리암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건국에 앞서 100일 기도를 올린 곳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성계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만약 자신이 왕이 되면 이 산을 비단으로 둘러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후에 자신이 왕이 되자 현실적으로 비단으로 산을 감싸는 것은 불가능하여 비단 금자를 써서 이산을 금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

려와서 그런지 보리암에는 수능합격 기원 가족들의 건강 기원 등등의 기도를 위해 찾는 방문객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인지 보리암 전체에는 관광객의 시끌시끌한 이야기 소리 보단 엄숙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가 흐른다. 발걸음은 저절로 숨죽이게 되고 큰소리치던 목소리는 목탁소리와 불경 소리에 눌러 속삭이게 된다.

이곳에 올라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커다란 해수관을 보살상이다. 176cm 인 내 키의 10배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웅장한 이 보살상 앞에 남해의 모습이 딱 펼쳐져 있다. 위에 올라와 모든 것을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작게만 보인다. 저 큰 바위와 산과 집들조차 작아 보이는데 자연 속에 서있는 내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눈앞의 산세와 절경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론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생각하게 된다. 탁 터인 곳에 올라와 자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분이라고 할까? 눈앞에 놓인 청색의 물과 검푸른 색의 산봉우리와 수많은 바위들 사이로 묘하게 지난 내 삶의 시간들 중 추억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곤 그곳에 서서 시인 이성복이 지은 남해 금산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듣게 되었다.

남해금산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 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이 보리암에 올라서서 주변을 바라보면 유난히 많은 바위들을 볼 수가 있다. 시인 이성복은 이곳에 서서 그 바위들을 보며 남해금산이라는 시를 쓴 것이다. 그는 저 수많은 바위들을 보며 지난 사랑에 관해 노래하였다. 돌 속에 묻혀 버린 한 여자. 그리고 돌 속에 따라 묻힌 그의 마음.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와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에 자꾸만 감정이입이 된다.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을 바라보니 지난 사랑이 떠오르고, 집에 계신 가족들을 생각하고, 철들은 척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속 다짐을 하게 되고, 어느새 그런 마음속 속삭임들로 가슴속이 꽉 차였다. 산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니 그 산세와 절경들이 탄성을 자아내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웬지 산이 가진 마술의 환각처럼 느껴졌다. 홀로 시원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머릿속 추억들도 함께 날려 보내려 했던 내 자신이 조금은 우습기도 했다. 커다란 그 절경들과 산세들을 눈에 담고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산그늘에 가려져 잠시 사라졌던 우리의 그림자들이 다시 아스팔트위로 모습을 내 보일 때 쫘 댄스레 하늘을 바라보며 보리암의 희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묘한 아쉬움을 매력을 가진 금산. 다시 내려와 돌아보니 처음엔 입구 밖에 보이지 않았던 금산의 모습에 내 시야가 넓어진 것이 느껴진다. 입구와 꼭대기만 응시했던 내 눈동자에 검푸른 초목들로 둘러싸인 금산의 큰 자체가 새겨진다. 신발아래엔 금산의 흙이 남아있고 양손엔 길안내를 도와준 금산 나무 가지들의 거친 촉감들이 남아 있으며 머릿속엔 한눈에 어우러진 남해 시내의 모습들이, 그리고 마음속엔 추억의 여유로움이 느껴진 보리암 등산. 누군가 떠올리고 시원한 바람 속에 흘려보내고 싶은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이곳에 발자국을 새겨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지워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짧은 여정

20051128 윤 숙

“빨리 와.” 그의 아쉬움이 가득 묻은 배웅을 뒤로 하고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부터 3박 4일의 답사 일정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틈바구니로 몸뚱이를 집어 던진다.

희고 고운 속살 사이사이에 아슬 한 연분홍 자욱이 흐드러지게 펼쳐져있다. 차창너머 내 정신을 앗아가는 그 풍경에 숨이 턱, 하니 막혀온다. 눈을 감아 본다. 그러자 아슬 했던 연분홍 자욱이 몽울몽울 피어오른다. 피어오르던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햇살이 얼굴을 톡 톡, 친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춘천의 봄과는 사뭇 다른 경상도의 봄은 시작부터 그렇게 달콤하게 피부에 와 닿았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번 여정이 어느 세 이만큼 시작 되어버렸다.

전 날 하루 동안 이러 저리 차에서 시달리느라 피곤했는지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잠이 들어 버렸다. 이른 아침 저릿한 통증 때문에 화장실로 달려갔다. 붉게 물든 변기통과 휴지를 보니 아차 싶었다. 오줌소태의 악화. 너무 오랜만의 여행이라서 일까. 몸이 버티지 못하고 그만 탈이 나 버린 것이다.

부랴부랴 아침식사를 마친 후 산부인과를 찾았다.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증상이 약소했던 방광염이 악화된 것 같다는 진찰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기보다 싫은 주사와 이틀 치의 약봉투를 품에 안고 다시 일정 속으로 몸을 내 던졌다.

하루 종일 사지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져왔다. 혼이 빠져 나가버린 듯한 몸뚱이를 질질 끌고 다니느라 더더욱 무겁게 피로가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정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여행길에 몸이 아픈건 배로 서럽고 배로 싫다.

붉은 유혹에 머릿속이 아득하다. 각양각색의 동백이 방긋 고개를 들이민다. 안녕?

한산도, 참으로 아득하고 한적한 곳이다. 이번 여정 길에서 아마도 가장 내 기억에 오래 머무를 듯한 느낌이 든다.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도 충분히 마음이 몽클해지는 곳. 냇을 놓고 달달한 산 내음과 촉촉하고 아득한 분위기에 심취해 있던 중, 문득 가슴이 쿵, 하고 숨이 차오르는 나를 발견했다. 그곳에선 이순신의 영정이 그윽한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산도를 빠져 나오는 배 안에서 한동안 참으로 복잡하게 감흥이 뒤섞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가쁜 숨을 고르려 문득 시선을 옮긴 그곳엔 갈매기 한 마리가 바다의 출렁거림에 몸을 내 맡긴 채 둥둥 떠 있었다. 우스꽝스럽지만 참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그 자태에 슬며시 입 꼬리가 올라간다. 한꺼번에 담아버리기엔 너무 가까운 한산도와 그를 휘두르고 있는 바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그 잔상은 멀어져 가는 길이 한 없이 아쉬워지게 만든다. 안녕.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유치환과 이영도의 사랑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도 역시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와 닿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그 둘의 사랑처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 될 수 있을까. 문득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한 없이 부끄러워져왔다. 그에게 전화를 건다. 반가운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없는 동안 많이 그리웠다는 그의 간지러운 속삭임이 벌써부터 그가 보고 싶어지게 만든다.

여전히 흰 속살 사이에 연분홍 몽우리를 부끄럽게 피어내고 있는 한 아름답리 벚꽃 길. 올 때도 설레이게 하더니 갈 때 역시 이토록 설레이게 하는 구나.

짧은 여정의 끝을 아쉬운 듯 손짓하며 나를 배웅하는 경상도를 뒤로하고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한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보자꾸나. 경상도야 정말 안녕.

봄바람 부는 남도 기행

20061114 박나라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문학탐방 수업을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다. 07학년 1학기가 개강하기 전에 예비 답사를 다녀온 곳이라 감회가 새롭기도 한 이번 답사는 날씨가 화창해 봄을 일깨워 주는 역할까지 해주었다. 강원도에서 경상남도 끝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의 시간은 답답하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남쪽의 기운은 이번 답사를 설레게 만들었다. 경상남도일대와 통영을 주로 이루는 이번 답사는 철없던 1학년 때와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예습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예비답사를 다녀와서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문학탐방과목이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3박 4일로 많은 곳들 방문해서 인상 깊은 곳들을

첫 도착지인 '농산정'에서는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을 몸소 느끼고 왔다. 시의 내용에 나타난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에 산 너머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내용과 옆 사람과의 대화가 힘든 상황을 통해 시적자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농산정'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은 첫 도착지임을 환영해 주는 듯 맑은 하늘과 거침없이 뻗어있는 소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두 번째 날에 도착한 통영에서의 세병관이 답사기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적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전쟁에 관한 회의를 하던 곳이라 그런지 웅장함과 아직 새로 색을 입히지 않은 건물의 모습이 옛 기운을 뿜어내는 듯 자신의 기를 뿜내고 있었다. 웬지 그 기에 눌러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불러 일으켰다.

삼일째 되는 날에는 통영에서 파라다이스호를 타고 한산도 제승당으로 가서 이순신을 만나고 왔다. 우국충정도 그림에 나타난 이순신의 모습과 한산도가의 내용이 겹쳐지면서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다. 드라마에 나오는 왜선들이 눈앞에 들어오는 듯했다. 조용한 제승당에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발소리는 임란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지만, 전쟁 중에는 다급한 상황의 연속일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표충사를 대신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누각 중에 하나인 영남루를 다녀왔다. 밀양강이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밀양지역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 같아 보였다. 과거에 손님이 오면 접대를 했고 경치를 즐기는 곳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영남루가 있는 곳에 만약 영남루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경치를 즐길만한 곳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박 4일의 일정을 모두 글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어느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글에 옷을 입히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으로 가슴속에 담는 것이 마음에 화려한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남도의 겨울과 봄을 경험한 이번 한국문학탐방은 멋진 여행과 공부가 되었다. 서울보다는 한산한 도시풍경과 친근함을 불러일으키는 구수한 사투리가 어느 여행보다 가슴 속에 오래 남을 듯해 뿌듯해지는 답사였다.

한국문화탐방을 다녀와서...

20071110 김수빈

대학교를 처음 들어와 선배들과 교수들과 처음 가게 된 여행 수업에 연장선이었지만 한국 문화탐방은 오래간만에 먼 곳으로 떠나보는 여행이었다. 고등학교 때 떠나는 수학여행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품고 답사를 떠났다. 하지만 3박4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장소를 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버스로 계속 이동하고 내리고 정말 힘든 일정이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함천 해인사 홍류문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답사에서 가장 멋있었던 곳을 이 해인사 홍류문에 있었던 계곡으로 하고 싶다. 맑은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쌓였던 스트레스도 같이 시원하게 내려갔던 것 같았다.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발표도 듣고 잠시의 휴식을 가진 뒤 우리는 조식 선생의 산천재로 갔다. 산천재에는 440년 된 매화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가 440년 동안 보았을 이 곳의 변화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동상이 있던 진주성도 멋있는 장관을 자랑했다. 변영로 시인의 논개의 배경이 되는 진주성 축석루에서 강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첫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이형기 시인의 낙화시비가 있는 신안동 녹지공원이었다. 내가 발표를 준비했던 이형기 시인의 시비가 있는 장소를 오니 감회가 새로웠지만 생각보다 초라한 장소와 시비를 보니 마음이 씁쓸했다. 첫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숙소 앞에 있는 해수욕장을 나가보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을 보며 모래밭을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통통배를 타고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를 가게 되었는데 유람선 같은 배가 아닌 이런 어선 같은 배는 처음 타봐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김만중의 유배지인 집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고 이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노도를 나와 노산공원 다솔사,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된 세병관 유치환의 행복 시비가 있는 통영우체국 등을 돌아다녔는데 노도만큼의 멋진 장관들을 볼 수는 없었다.

세 번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산도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탔다. 배에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바다도 구경하면서 한산도에 도착한 나는 굉장히 이곳이 굉장히 낯익었다. 그리고 돌로 된 거북선 모양의 등대를 보고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와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다시 와본 곳이라 그런지 낯익고 어렸을 적의 느낌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았다.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보면서 묵념을 하고 한산도를 나온 우리는 청마 유치환의 문학관이었다. 유치환의 생가를 복원한 이 곳은 원래 유치환이 살던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치환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셋째 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거제도포로수용소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최인훈의 <광장>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수용소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이곳에서 6.25 시대의 포로들이 겪었던 참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포로수용소를 나와 해금강에 잠깐 들렀는데 예쁘게 핀 유채꽃을 보느라 해금강에 멋진 모습은 잘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차에 타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에 들어서 잠깐의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선배 형들과 닭싸움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역시 여행은 이런 재미가 있어서 좋다. 마지막 날은 춘천으로 돌아오는 날 이었는데 표충사 대신 간영남루에서 윗놀이도 하고 재기차기도 하면서 마지막을 재미있게 보낸 것 같았다.

처음으로 떠나보는 문화답사는 몸이 많이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재충전이 되었던 좋은 여행이었다. 답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좋은 추억이 남게 된 것 같다.

2007 문학 탐방을 다녀와서

20071111 김예원

탐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돌아왔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바로 조그마한 시비. 장난기를 가득 가지고 돌아다녔던 나는 이 시비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창피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난생 처음 보는 시. 바로 유치환님의 ‘행복’이라는 시이다.

이 시의 시비는 통영 중앙동 우체국 앞에 놓여있다. 너무나 초라하게 서 있어서 있는 줄도 몰랐던 이 시비. 우체국에 가려 제대로 보지 못 할 뿐 한 초라한 시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로 시작하는 ‘행복’이라는 이 시로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았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거나, 먼저 사랑하기를 꺼리는 그릇된 풍조에 참사랑의 경중을 올려주고 있다며 거창하게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적어도 내가 탐방에 가서 시비를 읽고 느꼈을 때는 분명히 달랐다. 화자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느낀 화자의 심정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화자는 지금 이별을 하고 있다. 서로 사랑을 했는지 화자 혼자서 짝사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화자는 혼자 우체국 앞 카페에 앉아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이라는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이 만날 때 반가워서 하는 인사일까, 아니면 이별의 앞에 서서하는 인사일까. 어느 누구라도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 사랑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이별할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좋았던 추억들만 떠올리고 있다.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이시의 화자. 정말 멋진 것 같다. 비록 시비는 작았지만 시비안의 내용은 그 어느 것 보다 거대했다.

남강을 보며

20041127 김주환

진주성에 딸린 바위에 선다
논개였다지 그 이름
저 남강에 빠져 죽은 이름
강물은 흐르는데
논개의 숨이 그 자리에 있다
왜장을 꺼안았던 팔 벌린 것처럼
저린 마음 한 송이 떠 있다
그 바라보는 가슴은
논개의 마음으로
남강의 마음으로
절벽을 쓸어내리며 폭포수처럼 낙화한다
그 여인 속내 어루만지는 정으로
남강 바위에 선 날
물 속 깊이 뿌리내린 사연에 꽃피는 거 본다

나의 문학 유산 답사기

20021120 노재화

동일 지역으로의 두 번째 방문, 설레는 느낌 보다는 익숙함을 가지고 시작된 2007년도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탐방. 미리 다짐했던 것처럼 여유로운 여행보다는 실수가 없는 답사를 위해 3박4일을 보냈다. 경상남도 지역으로 진행된 이번 답사는 고전 국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많은 문학 유산을 만나볼 수 있었다. 지난겨울 실시되었던 예비답사. 흐린 날씨와 비로인해 고초를 겪은 나는 혹시나 본 답사 때에도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출발부터 그런 걱정은 날려버리라는 듯 화창한 하늘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봄내음 물씬 풍기는 따뜻한 남쪽 나라. 적지 않은 인원과 적지 않은 답사지역. 출발까지 내 어깨를 잔뜩 짓누르고 있던 부담감들은 홍류동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를 본 순간 모두 날아가 버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 중간 우리에게 봄소식을 알리는 벚꽃과 유채꽃들은 뽐뽐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답사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바빠졌고 힘들어하는 인원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고통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잘 참여해주었고 한곳, 한곳 답사를 할수록 활짝 핀 봄꽃처럼 얼굴도 활짝 피었다. 함천 가야산의 홍류동, 진주 남강, 남해 보리암과 노도, 통영의 한산도, 거제도의 해금강……. 한 번에 다 열거하기에도 많은 곳을 돌아봤다. 날씨가 맑은 탓일까 예비 답사를 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도 느껴졌다. 특히나 보리암 등반을 할 때 비록 일출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상에 올라 남해 앞 바다를 바라보는 느낌은 정말 답답한 마음을 뽕 뚫기에는 충분했다. 예비답사 그 열악한 기후 속에서 등반을 하고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맑은 날과 흐린 날. 분명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김만중이 유배를 지낸 노도로 들어갈 때나 한산도에 갈 때 역시도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좋았다. 하지만 예비 답사 때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은 다솔사와 세병관은 그 때와는 다른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흐린 날, 그날에 느낀 느낌 그대로 나에게 다가왔다. 잔잔한 감동이 있는 장소. 언젠가 되었든 꼭 한 번쯤은 혼자서 찾아가고 싶은 그곳. 아주 조용한 다솔사와 뭇지 모를 웅장함 마저 느껴지는 세병관. 문학에 관해서는 부족한 게 많은 나였지만 이렇게 답사가 진행되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것이 비록 문학사적인 욕심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라도 더 알고 싶다는 욕심. 이것이 언젠가 나에게 커다란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바쁜 일정, 모두가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때 잠을 자고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창밖에 스쳐가는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비록 이번 답사가 바쁘고 뽐뽐한 일정이었지만 가슴속에 무언가를 담아 오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일정 내내 맨 앞에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지만 예비답사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처음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2007년도 한국문학탐방.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포로수용소

20071113 김정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곳엔
아직도 피비릿내가 진동하고 있고

핏물이 지나간 그 강 길엔
아직도 죽음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과거를 잊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
뜻 모를 미소만이 가득 차 있다.

논개 시비 앞에서

20071114 김주연

의암절벽 벼랑에 날아갈 듯 치켜올린 겹치마폭
나라를 사모하는 충정으로 남강으로 뛰어드네
바람처럼 거침없이 왜장의 허리안고 낙화하는 꽃
한순간 이별을 고향이며 역사의 획을 그네
이 땅의 힘겨운 민초들과 함께 뼈 묻고 싶은
마른 육신에 활활 불 지핀 채
누가 이토록 사무치는 지상의 꽃을 보았는가
내안에 축축히 젖어드는 논개의 뉘 접어두고
이곳에 그냥 서 있으리 흐르는 역사 앞에서

바람아 바람아

20011147 이상구

바람아, 바람아,
천년전에도 바람이겠구나
소나무 가지를 지나칠 때마다
천년전의 추억과 재회 하는
바람아 바람아
느껴보거라
바람이 스쳐가는 발자욱을.

천년전의 되풀이를 하던 바람의
지나온 자리를 볼 수 있느냐
사람아 사람아
눈을 뜨거라
청명한 바람이 느껴지는가

바람과 같이 사는 사람아
언젠가
바람으로 돌아갈 사람아

보리암 등반

20061103 강정우

몇 년 만? 아니, 사실 등산을 안한지도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아래에서 산을 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아니, 사실 그 산의 높이에 지레 겁먹고 있었다고 해야 솔직한가? ‘저길 언제 올라가. 휴.’하는 생각이 나며 한숨.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은 험한 산길을 힘겹게 디더가며 점점 더 출발지점에서 멀어진다. ‘어디가 정상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길. 산 중턱에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약숫물. ‘아~행복하다.’ 하지만 이 행복감도 잠시 아직 반 정도밖에 못 왔다는 사실에 한 번 절망. ‘정말 울고 싶다.’ 내 앞에 보이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건가. 보이질 않는다. 너무 지쳐 방향감을 잃어버린 것일까. 길도 아닌 이상한 곳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을 잡아주는 증발해 버리지 않은 사람들.

정상이 점점 가까워질 때쯤, 산이 입을 크게 벌리고 힘내라는 듯 시원한 입김을 불어 넣어준다. ‘드디어 정상이다!’이번에 먹는 약숫물은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게 까지 느껴진다. 힘들다 힘들다 하며 오른 산 정상에 막상 서보니 짜 섞이게 나오던 말들은 어디론가 온데 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눈앞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이다. 산에 오른다는 게 이런 건가. 산행 한 번에 이런 말은 다소 웃길지 몰라도 인내심을 기른 기분. 그리고 거기에 성취감까지. 오늘 산행은 성공적이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모두 내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것은 주머니 대신 카메라 속에 모두 넣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각기 카메라 속에 그것들을 담아 가기에 바쁘다.

내려오는 길은 오르는 길보단 훨씬 수월했다. 가볍게 폴짝폴짝. 그렇게 폴짝거림도 산 중턱까지만. 또다시 시작되는 다리의 후들거림. 아깐 그렇게 아름답던 산이 돌아가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쉬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건가. 점점 더 세게 그 발걸음 들을 붙잡는다. 내려온 후 통증은 더 심해진다. 다리를 아직도 산이 붙잡고 있나? 다리의 뭉친 근육들은 평지를 걷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점점 더 조여 온다.

이 통증. 내일이 되면 괜찮겠지.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니 그 통증은 두 배로 나를 더 조여온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이 지나도. 언제쯤 이 통증이 없어질까?

꽃 비 내리는 날에

-한산도에서-

19991101 강성보

햇살이 벚꽃을 타고 내립니다
나는 무엇인가 주저하며 그 자리를 서성입니다
낙하하는 잎 수만큼이나 나는 다리를 절고 있구요
나에게 배움은 마치
군대 같아, 기어이 나를 전장으로 이끌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사람을 죽인 어린 병사처럼, 그래서 이렇게 텅텅 거리고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무수한 탄환 자국으로, 핏자욱으로
내 가슴 안에 자리잡았구요
아마도 수많은 자해를 자양분으로,
또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테지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저리도 내 옆은 텅 빈 모양입니다.

영남루에 올라 낙동강을¹⁾ 바라보며.

20051140 조혜근

문학을 찾아 탐방을 떠나나선지 올해로 두 번째가 되었다. 이번 경상남도 탐방은 유난히 힘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해금산을 올라가는 일은 정말 참가하고 싶지 않았던 계획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포기할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 때 마다 내가 탐방을 떠나나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올렸다. 위대한 문학작품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고 나 또한 무엇인가 느끼기 위해서 떠나나선 길임을 자신에게 상기시킬 때마다 포기 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통통한 나의 콧등에 땀방울이 맺혀가며 올라간 금산의 보리암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치는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이었다. 바다위에 떠있는 남해의 무수한 섬들이 겹겹이 겹쳐져 병풍을 이루고 있는 장관은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이렇게 멋진 경관을 보니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한 글들이 써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탐방 기간 동안 그러한 생각은 계속 되었다. 너무나 멋진 자연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특히 3박 4일 동안의 일정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가보았던 영남루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영남루만큼은 전혀 도심과는 거리가 없어 보였다. 친구와 함께 신발은 벗고 누각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햇볕에 반짝이며 바쁘게 수다를 떠는 낙동강이 여유롭게 흐르고 있었으며, 포근한 봄바람이 우리의 탐방을 기념이라도 해주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누각위에는 우리가 오기 전부터 와 있던 고등학교 두 명이 편안히 앉아 낙동강을 바라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시적으로 보였다. 심지어 단순한 게임 얘기를 하며 앉아있는 고등학생들이 내 눈에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는 엄마와 누각 위에서 뛰어다니며 도망치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 같아 보였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 절정에 달할 수 있는 곳이 그 곳인 것만 같았다. 단순하게 친구와 같이 오른 누각 위는 모든 것에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 또한 “이런 곳에 살면 정말 시가 저절로 나오겠어.”라는 말을 나에게 했다. 나만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정말 그 마법에 걸리면 시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순간 모든 것을 떠나 홀로 조용히 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이란 것이 얼마나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지,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자연에 비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순간이었다. 3박 4일 동안 많은 곳을 둘러보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영남루에 서서 낙동강을 바라보던 잠깐의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 자연이란 위대한 힘, 그것을 노래하는 문학. 그것은 실로 마법에 빠져야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이다. 더욱 더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눈과 마음에 담을수록 그 마법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걸리고 싶어 하던 마법에 걸리기 위해서 나에게겐 조금 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영남루에 서서 떠올리며, 강물처럼 반짝일 내 미래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문학 탐방은 막을 내렸다.

1) 밀양 영남루 앞을 흐르는 강은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임.

논개여

20061113 문술빈

논개여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당신이 그날 서 있던
그 바위 위에 서서
그 날의 당신을 그려봅니다.

논개여
나는 그렸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그 아름다웠던 당신의 얼굴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날의 당신을 그려봅니다.

논개여
나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그 혼을....
당신의 몸은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갔지만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의암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다

20061133 이영수

바다가 보인다.
바다 냄새가 난다.
바닷바람이 느껴진다.

저 푸른 바다는
그 넓은 가슴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따뜻한 햇살과 바다가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다.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넓은 가슴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니...

산사

20071119 박영훈

밤바람이 떠나기 전에 산을 오르자
이슬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산을 오르자
속세의 더러운 것을 보기 전에 산을 오르자

산 아래 검둥이와 내달려보고
산 중턱 약수터와 물장구칠때
산 정상 보살님께서서 미소를 지으신다.

두명의 검은 수문장이 땀을 닦아주고
푸르른 나무와 숨을 고를 때
깊은 산속 그곳에서 그분과 만나리.

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71121 박지희

문학탐방? 아니다. 이름을 바꿔야 한다. 문학여행정도로? 탐방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정말 가까운 여행 같은 시간이었다. 맛있는 밥도 먹고 편한 잠자리에서 잠도 자고 탐방 이동 과정 중 관광버스에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답사를 가서는 예쁜 꽃도 구경하고 멋진 바다도 구경하고 신선놀음이 따로 없었다. 탐방 중에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바다를 구경을 갔었다는 것. 일정이 대부분 끝난 뒤 가서인지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잔잔히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었다.

사실 액면가만 보면 십일 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탐방 속에 프로그램들과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을 종합해보면 그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문학탐방은 계속될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또 가라고 하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ㅋㅋ 그러나!! 내년이 되면 새삼 같은 나의 후배들도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문학탐방에 참가하겠지. 그러면 후배들은 지금의 나처럼 ‘일정 너무 짝짝하다’ 라던지 ‘숙소가 좋아요’ 같은 불평들을 늘어놓겠지만 후배들도 우리 문학인들이 남겼던 자취를 바라보며 내가 느꼈던 감정 같은 알찬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문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탐방에서 체험했던 작품들을 보면 엄청 반가울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렵것이 형태로만 잡히던 작품들이 이제는 생생히 나에게 다가오겠지. 그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하지만 탐방 뒤 밀려오는 소감문과 웹문서 작성은 큰 부담이었다. 다음에 참가할 때는 아무래도 객원으로 참가해야 할 것 같다.

지금 까지 소감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탐방을 다녀와서

19991106 김영인

흔히 통영을 동양의 나폴리라고 부른다. 나폴리에 직접 가보지 못해 장담할 수 없지만, 세계 3대 미항(美港)의 하나로 꼽히는 나폴리만큼 아름다워서 통영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짐작한다. 그래서 누구나 통영에 대해 조금씩 환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탐방 기간 동안 둘러본 곳이 많았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남망산 공원과 해금강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본 남해바다가 탐방 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남해바다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해나 동해는 몇번 갔지만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남해바다를 보고 바다가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었다. 일단 물이 너무 깨끗하고, 파도가 거세지도 않고 잔잔해 보고 있으면 내 흥분된 가슴도 차분해진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 만난 남망산 공원은 생각보다 무척 마음에 들었다. 여느 공원들처럼 틀에 박히지 않고, 순하게 생긴 지형을 그대로 살려 산책로와 전망대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나무가 많아서 숲속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전망대에 서면 통영 앞바다에 떠있는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탐방 기간 내내 날씨가 좋아 기분 좋은 여행이 된 것 같다.

경상남부 지역을 다녀와서

20061117 변현지

2번째 탐방. 2006년도 탐방 때도 참가하였었지만 탐방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저 여행 간다는 마음에 부풀려 아쉬움만 남던 06탐방이었다. 4월 4일 또다시 떠나는 탐방. 작년과는 다른 곳이라 더욱 마음에 부풀렸지만 이번 탐방은 목적을 되새기며 갔다 오겠노라고 다짐하였다. 버스를 타고 들뜬 마음에 모두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특히 새로운 후배들과 함께 떠나 더욱이 기분이 좋았다. 남부지방에 도착하니 향긋한 꽃내음과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아무래도 남해 쪽이다 보니까 바다내음도 너무나 상쾌했고 넓은 바다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가라앉혀주었다.

도착해서 논개가 빠졌다는 바다에 가서 답사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들으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두 배를 보며 그림같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논개의 슬픔에 잠시 빠지곤 했다. 또한 통영 중앙동 우체국에 가서 유치환의 「행복」 시비를 보며 다른 어떤 시보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예전에 그 시를 읽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직접 가서 시비를 다시 한 번 읽어보는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 두 구절이 나의 마음 속 깊이 남게 되었다.

셋째날 거제포로수용소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큰 규모의 이곳은 우리의 입을 딱 벌리게 만들었다. 이 시설에는 인민군, 중공군, 포로, 의용군 등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안쓰럽게 보이고 그냥 그곳을 웃으면서 나왔지만 정말 그 당시에 포로였던 분들은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생긴 일들로 얼마나 힘들고 살기조차 싫었을 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거제에 있는 해금강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버스 안에서 이동하며 힘들었던 것들을 훌훌 털고 바닷가를 거닐며 심신을 다졌다. 이곳에서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둘째날 새벽 보리암 등반을 못했던 것이다. 갔다 온 학우들은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 탐방 때 아쉬웠다. 김종직의 영남루를 관람하러 마지막 날 갔는데 그곳에는 윗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 재밌게 즐겼다. 남자 학우들은 제기 한 개 가지고 다같이 노는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이번 탐방을 다니면서 더더욱 진지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에 아쉽다. 그리고 이번 탐방은 시간에 너무 쫓겨 답사하는 곳을 오래 머무르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내년에 탐방 가면 꼭 가서 그땐 아쉽지 않게 답사 하고 올 것이다.

반갑습니다

20071123 시민경

김춘수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

바람이 우리를 안내하고
꽃들은 우리에게 환영인사를 보낸다.

노을을 업어진 이순신,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흔든다.

발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될 수록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지고

알콜은 약이 되어
피로까지 말끔해진다.

보리암, 그 품에...

20071124 안인태

맑고 푸르른 하늘을 향해
막힌 나의 가슴을 터뜨린다.

깨끗함과 청명함, 그 속에
자연, 자연이 살아 숨쉰다.

평온한 숨을 쉬고있는
그 자연속에 나의 몸을 맡긴다.

포근하고 따스한 그 품.
그 품속에 나의 마음을 맡긴다.

3박 4일간의 봄으로 외출

20011158 이철민

한국문학탐방으로 3박 4일간에 경상남도기행, 가슴 속에 너무나 깊게 남았던 것인지 절대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내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다. 2006년 학교에 복학 직후 ‘한국문학탐방’ 처음 이 과목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과목이지?’하고 군대갔다는 사이에 특이한 과목이 만들어졌구나 하구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다녀오면서 지금까지 4년에 대학생활을 통틀어 절대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번 탐방을 통해 기억 남는 것들을 몇가지 말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여행 중 가장 기억 남는 것들 중 하나가 모든 여행들이 그러겠지만 출발 전에 설레임이 아닐까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꾸리면서 처음 가는 탐방인대다가 조장이란 직위 때문에 조원들을 책임지고 통솔 관리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다람쥐 바퀴 돌리듯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어디론가 떠난다는 일탈감, 따듯한 봄내음이 물신 풍기는 남해로 간다는 기대감을 모두 뒤엎겨 떨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모이고 버스에 올라 출발하는 순간까지 날 떨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국문학탐방 첫째 날이 시작되었다. 우리들 모두는 학교인 춘천을 떠나 버스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해인사 홍류동 계곡이었다. 처음 도착해서 그런지 ‘어떤 곳일까?’하고 많이 기대 했고 최치원이 시를 지었다고 한 곳이니 만큼 얼마나 시가 아름다운지 직접 읽고 느껴보고 싶었다. 그 곳은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고 시의 내용대로 물 흐르는 소리가 정말 가슴을 시원하게 들려왔다. 혼잡하고 어지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의 최치원의 생활은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들리고 싶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랜 시간을 지내온 만큼 시문이 많이 지워져있고 주변 경관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바위에 새긴 글로 훼손되었고, ‘유명하고 알려질수록 사람들에게 손때를 탈수밖에 없을까’하는 느낌에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산천재, 단속사, 진주성 등 여러 곳을 관람하고 숙소에 도착하였고 그렇게 탐방 첫날에 일정이 끝났다.

둘째날 새벽, 어제밤 싸인 여독과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 조금은 졸리고 피곤했지만, 금산에 올라 보리암에 가기위해 일어났다. 밤새 마신 술 때문에 탐방인원 모두가 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남해의 차갑고 짭짤한 새벽 공기를 느끼며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 등산을 시작하면서 ‘이쯤이야’하는 생각으로 금방 가겠지하고 우습게 봤지만, 작년에 아파서 운동을 못했던 탓인지 몸에 점점 힘들고 피곤하다는 느낌만 들고, 등산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산을 올라감에 따라 흐린 커튼을 치워내듯 드러나는 경치 때문에 등산을 포기 할 수가 없었고 보리암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쉬면서 올라오지 못한 몇몇 학우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정상을 올라갔고, 정상 봉화대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몸을 스쳐지나가며 남해 모든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왜 사람들이 등산을 하지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다. 그곳에서 본 경치는 보리암에서 본 경치보다 몇 배는 더 아름다웠고 못 올라간 사람들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졌다.

셋째 날, 내가 발표를 하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을 방문한 날이다. 우리는 배를 타

고 한산도에 도착했고 수루와 활터 제승당, 충무사 등을 둘러보며 그곳에 이순신 장군이 어
던 생각을 가지고 한산도가 지으셨는지 근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이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
가신 여러 조상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인 넷째 날, 통영을 출발해 구지봉과 예림서원, 김종직 생가를 관람하며 오늘로 모
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생각과 드디어 집에 도착해 편히 쉬
어야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지치고 피곤하게만 느껴지고 전
날에 비해서 버스에서 지낸 시간이 가장 길고 인상에 남았다.

탐방을 모두 마치고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디카를 가져가지 못해 사진을 거의 찍
지 못한 점과 조장이면서도 조원들이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 몇몇 학우들이 여행 중 갑작
스레 아파서 모든 일정을 같이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 하지만 여러 곳을 둘러보
기위해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일정이 조금 뻘뻘 짜여진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천천히 와서 꼭 둘러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남해의 봄을 느껴본 것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만 같
다.

2007년 어느 봄, 논개를 떠올리며

20051116 박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가파른 절벽 위에 서서
그녀를 떠올려 본 그 날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내 불을 쉬이 식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내 불에 와 닿습니다.

순간의 깜짝 놀람이
내 불을 더 상기시킵니다.

그 곳을 떠나 온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용광로 속의 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그 날의 부끄러움을

한국문학탐방후기

20061120 송아름

봄 내음이 가득한 남해로 삼박사일의 짧고도 긴 여행을 다녀왔다. 작년에 다녀왔던 한국문학탐방을 또 다시 다녀오게 된 것이다. 한번 경험한 터라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엔 작년과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설레임을 안고 남해로 가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몇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로 맨 처음 도착했던 최치원에 관련된 홍류문이었다. 벚꽃 길을 따라 올라온 가장 먼저 만나 본 봄은 너무나 싱그러웠고 구름다리 밑으로 흐르는 계곡 물은 버스에서 내내 앉아 있었던 피곤에 지친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다. 서울 여의도에도 벚꽃이 폈다고 하던데 도심 속에서 있는 꽃보다 자연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벚꽃 길에 비할까. 자유로이 사진도 찍고 하던 중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최치원이 썼다던 '제가야산독서당'의 실제 배경이라고 하니 이런 환경이라면 나 또한 멋진 시인과 소설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보았다.

시원한 계곡을 뒤로하고 산천재와 단속사를 지나 논개가 있는 진주성으로 향했다. 그 중 아찔한 절벽이 가장 인상깊었다. 그 곳이 논개가 왜장을 유인하여 투신하였던 곳이라고 하였는데 여인으로서는 어디서 그런 용기를 가졌는지 놀랍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절벽만큼이나 아찔했다.

그리고, 이틀 밤 뒤인 4월6일, 배를 타고 들어간 이순신장군이 있으셨던 한산도에 가게 되었다. 내가 조사한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관람하였다. 관람 중 수루와 계승당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혼령이 있거나 한 듯 펜스레 숙연해 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 곳엔 한산도가라는 널리 알려진 시조가 있는데 용맹한 이순신 일지라도 전쟁을 앞둔 한 장군의 근심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타 최인훈 '광장'의 배경 이었던 거제포로수용소로유적 공원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6.25때 우리 군이 북한군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곳이라고 했는데 그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현실감 있게 만들어 놓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느낀 게 많았던 곳 이었다.

이번 탐방은 작년보다 조금은 더 일정이 빠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어느 곳은 자유 관람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며 내 기억 속에 오래 도록 남을 것 같지만 어느 곳은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서 획 둘러보고 다시 버스에 탄 기억뿐이어서 그런지 아쉽고 여기가 어딘지 조차 모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었던 작년과는 달리 몸, 마음이 짐도 다잡고 가서 더 즐겁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 작년 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기행문

20071127 우혜민

눈을 떴을 땐 벌써 6시30분이었다.

평소에는 더 자려고 이불을 덮었을 텐데 문학탐방을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서 씻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챙겼던 가방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7시 10분에 연암관 1층에서 모여서 출발을 했다.

제일 처음 간 곳은 해인사였는데, 나무와 계곡 물소리가 아름다웠다.

해인사에서 최치원에 대해 발표를 듣고 있는데, 그림이가 최치원이 자기 조상님이라고 해서 신기했다. 해인사에서의 발표를 마치고, 사천재와 단속사를 지나 진주의 축석루 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 축석루에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축석루 바로 앞 절벽 아래에 작은 섬처럼 떠 있는 바위가, 논개가 왜장을 껴안고 뛰어들었던 의암인데, 물 위로 솟은 높이와 너비가 약 3m 정도의 바위로 조금씩 움직여서 축석루 쪽 절벽에 들러붙기도 떨어지기도 한 다는데, 절벽에 와 닿으면 큰 재앙이 난다는 전설이 있다. 본디 위암이라 하였는데, 논개의 충절을 기려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축석루를 다 둘러보고 이형기 시인의 낙화시비를 보러갔다. 아파트 앞에 있어서 다른 곳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낙화시비 앞에서 발표를 마치고 숙소로 갔다.

둘째 날 보리암 산을 올라야하는데, 늦잠을 자서 못 오르지 못하여서,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숙소 앞에서 뱃꽃이랑 사진도 찍고 바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든 것 같다. 보리암산을 타고 온 친구들이 와서 아침밥을 먹고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를 갔다.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경치도 좋고 속이 뻥 뚫린 듯 하는 느낌을 받았다.

배를 타고 들어가 노도에 도착했다. 노도는 꽃도 피고 봄바람도 불었는데 너무 좋았다. 나는 노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노도에서 발표를 듣고 삼천포, 다솔사, 청마거리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셋째 날은 제송당, 청마문학관, 남망산, 거제포로수용소를 갔는데,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다. 넷째 날은 구지봉, 국립김해박물관, 김종직생가를 갔다.

고등학교 책에 나왔던 구지가를 배웠는데, 직접 구지봉을 보니 거북이 모양을 닮아 신기했다. 문학탐방을 하면서 본 여러 장소들 모두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정말 뜻 깊고 좋은 탐방이었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내 사랑

20071128 이석원

이 곳
남해 금산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돌계단 헤아리며 쉬엄쉬엄
이마의 소낙비를 훔치며 고개를 치켜보니
보리암 고개에 홀연히 서 있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땀과 눈물은 이미 구분을 잃었고
그대의 미소는 내 눈에 투영되어
눈물을 삼키듯 우린
서로를 만났습니다

나도 돌 속에 묻어주
날 그대 가슴에 묻어주오

남해 바닥을 헤집어 다니다 만나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내 사랑
눈물을 이기는 인사말을
조심스레 남기어둘 터입니다

노도의 선물

20021125 박수호

보리암 등반을 마치고 들어간 노도. 화창한 날씨 덕분에인지 멀리서도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다. 생전 처음 타게 된 고깃배에서 내려 노도에 첫 발을 내린다.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를 따라 올라가는 길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아니 어찌면, 노도 자체가 작은 마을이리라. 여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큰 나무는, 마치 노도의 작지만 깊은 역사를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꼬불꼬불 길을 걸어가며 전경을 느끼고-느꼈다기 보다 즐겼다고 할 수도 있겠다- 노도를 눈으로 담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 갈 무렵, 작은 발을 일구는 할머니. 길게 늘어선 우리 학생들을 발견하고는 잠시 허리를 세우신다. 흰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허리를 세우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어서 오라는 말씀을 연거푸 내뱉으신다. 무리의 후미에서 가고 있던 나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저렇게 맑은 웃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할머니의 환영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심상이었는지 넉살 좋게 할머니께 인사를 드린다. 할머니의 사투리를 따라해 보기도 하고 건강을 여쭙기도 하고, 긴 대화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었다. 결국 할머니는 우리 무리가 전부 지나갈 때 까지 허리를 숙이지 않으셨다.

할머니의 웃음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 노도에서 평생을 살았을 노인,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온 노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마, 평생을 하얗게 살았을 것이다. 그 작은 발을 가꾸며 조용한 노도에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살았을 할머니. 문명과의 단절에 대해 한 번이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보니 작고 사소한 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결국 혼자서 할머니의 인생을 그려보지만, 내 짧은 생각이 그 맑은 일생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처럼 더러운 존재가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하며, 씩씩한 미소를 머금는다.

노도의 할머니는 적어도 나에게만은, 혹은 누구에게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맑은 웃음은 검게 더럽혀진 내 짧은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다. 할머니의 그 맑고 깨끗한 마음 스물다섯 청년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로 다가왔다. 신은 노도 사람들에게 그 장관을 평생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신 듯 했다. 아직도, 할머니의 투박한 손과 작은 호미, 굽은 허리와 맑은 웃음이 눈에 선하다.

보리암의 선물

20061126 유지나

산을 왜 오르는지 몰랐었다.
오르면 금방 내려오게 될 산을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다고
그토록 산을 오르는지 몰랐었다.
이런 나에게 보리암은 선물을 주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물
산 정상에서 맞는 바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땅
그리고 뭔지 모를 기쁨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말이다.
모든 것이 산을 오르기 전과는 달랐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보리암이 준 선물로 마음은 풍요롭다.

잊혀진, 그들

20071129 이영준

우리는 세월을 비껴가며 무언가를 봤는데
그것은 이미 무게가 없는 역사로 묻혀졌다

그들의 남겨진 앙금도 한때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등지고 사라져갔고
우리는 거기서 무감을 느끼며 지나쳐갔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슬픈 일이다
그들의 앙금은 숫자와 이름만이 남았으니
누가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아줄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쯤 패념치 않으리라
묘지 위에 걸터앉아 우리들을 응시할 뿐
그들은 현재의 휴식에 만족하고 있으리라

잠에서 깨면

20071130 이용희

잠에서 깨면
옛 문학인들의 향수가
코 끝을 살랑이고

향수를 느끼려
손을 내뻗으려 하면
향수는 떠나가고

느끼고 싶다
느끼고 싶다
향수를 느끼고 싶다

손을 내뻗으면
나의 몸은
딴 곳을 향해 가네.

從踏山水

20011178 최진용

물을 좋아하던 지혜로운 자는
흐르는 물소리에 스스로를 흘려보내고
산을 좋아하던 어진 자는
청풍 술바람에 몸을 씻어낸다

지금은 만고에 묻혀 흔적만이 남았으나
범인(凡人)들은 지자(知者)와 인자(仁者)를 잊지 못하여
그들의 산수를 찾아 과거의 체취를 맡아낸다

고금(古今)이라
시간의 때가 엇갈려
배움을 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남은 요산요수의 풍치에서 느꼈던 범인의 감흥은
양자(兩者)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한국문학탐방과 거제포로수용소

20061130 이소희

2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가보게 된 문학탐방. 작년에도 문학탐방 I 이 있었지만 수강하지 못해 이번에 처음으로 문학탐방을 가게 되었다. 기대 반 설렘 반, 2007년 4월 4일 아침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처음으로 가는 단체답사여서 뻑뻑이 짜여진 일정이 처음에는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세 번째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적응이 되어서 발표문을 듣고 유적지를 두루 살펴볼 만큼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문학탐방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았던 곳은 거제포로수용소이다. 내가 발표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탐방기간 내내 얼른 가보고 싶은 곳이 거제포로수용소였다. 거제포로수용소는 3일째 날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첫째 둘째 날 많이 기다려졌다.

최인훈의 광장의 배경이 된 거제포로수용소. 거제포로수용소가 광장의 배경으로 쓰인 연유를 알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광장을 읽었고, 뚜렷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둘러본 터라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거제포로수용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컸고,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잘 건설되어 있었다. 처음에 입구에서 볼 때는 건물이 몇 개 없어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 갈수록 길이 연결되어 있었고, 많은 구조물 등이 있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당시 거제포로수용소를 재연해 놓은 조각상이나, 영상물 등을 볼 때 슬프면서도 무서운 정도로 포로들의 생활은 비참하면서도 안타까웠다. 여러 국의 포로들이 모여 생활을 하는 수용소의 모습은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여러 구조물을 지나 한 건물에 들어가니 그곳은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의 모습을 재연해 놓은 곳이었다. 쇠 철창살을 맨손으로 잡고 흔들어 손이 찢겨져 피가 나는 데도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사람들.. 손에 하나씩 무기를 들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는 모습은 나에겐 너무 슬프게 다가왔다. 음향 시설 또한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듯이 절박하면서도 거대한 고통소리였다.

모든 구조물을 다 관람하고 나와서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갔다. 벌써 1학년 후배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나또한 그곳에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을 찍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곳에서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다.

이번 문학탐방이 아니었다면 큰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어쩌면 잘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제포로수용소. 그곳에서 포로들의 생활상과 폭동..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점을 깨달았고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거제포로수용소를 방문해 보고 싶다.

거제 포로수용소

20071132 이호영

포로들의 고통을 받는 소리
내 귓가에 들리진 않지만
마음에서 피 눈물이
흘러 내리는 구나

포로들의 매 맞는 소리
내 귓가에 들리진 않지만
마음에서 피 명이 드는구나

아 그들의 고통을 누가 알리
그들은 아무런 죄 없는 포로
그곳에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구나

그들의 고통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 고통속의 처참한 그들의 모습

포로들의 고통과 매 맞는 소리
내 귓가에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 한 켠에 영원히 남으리

한국문학탐방

20071133 정정호

관념에 흠뻑 젖어있는 자의 음성이 들리는 도다
그 음성에 내 자신은 그저 찰라에 망부석이나 된 듯이
일순간에 멈추어져 버린다

망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애달프니
그 한이 우자의 가슴 속 메아리 한켠에 울리려는 듯이
고개를 떨구어 내린다

차창에 나부끼는 죽어있는 눈이
이다지도 슬프도다
아아 슬프도다

그 자의 과거와 현재는 지금껏 달려 왔으나
허나 그렇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 화려했던 날의 영광은 시련이 되려니와
그 시련은 지독히도 슬픈 사실이 된다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21154 이윤수

군대생활 이후로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는 처음이었다. 7시에 학교에 모여야 해서 6시 반에 일어났다. 생각보다 상쾌했지만 몸은 힘들어했다. 그렇게 학교에 모여 인원 체크를 하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하염없이 버스는 4시간을 달렸다. 지루하고 피곤하고 재미없었다. 버스에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나를 괜찮았다. 휴게소에 들리는 10분의 시간은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홍류문에 도착하니 그래도 한결 나아졌다. 책으로만 배우던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을 보고는 마냥 신기하였고, 바위들과 계곡 물소리는 나를 잠에서 깨우는 듯 상쾌하였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 손이 시릴 정도의 차가운 물은 정말 내가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시를 짓고 많은 사념에 잠겨 지냈을 것 같았다. 거기에 있는 것도 잠시 우린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다. 또 지겹고 답답한 버스를 타야 한다. 목이 매여 온다. 버스를 많이 탔었지만 정말 지루했다. 버스에서만큼은. 진주성에 도착하였을 때는 정말 아름다웠다. 논개의 발표를 들으며 논개의 마음을 한 번 생각했다. 남자인 내가 하기 힘든 일을 연약한 여자가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하고 높이에 한 번 더 놀랐다. 바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러 숙소에 들어왔을 땐 정말 피곤하여 골아 떨어졌다. 다음 날 보리암 등반도 마음에 걸렸는지 몸은 벌써 내 말을 듣지 않았다. 5시 40분 누군가 나를 깨운다. 정말 피곤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땐 오길 백번 잘했다고 느꼈다. 서로 도와가며 힘들게 올라가니 산과 구름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진짜 돈 주고 못 보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등산이었는지 생각보단 힘들었다.

작은 배를 타고 노도에 가기 전에는 배타기가 정말 싫었다. 2년 2개월 동안 배를 타서 배도 싫고 바다도 싫고 갈매기도 싫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좋았다. 바다도 깨끗하고 상쾌했다. 갈매기에게 과자도 주며 즐겁게 노도에 도착했다. 김만중의 유배지를 가봤는데 비석하나에 실망이 컸다. 아침에 등산도 해서 피곤했는데 더욱 몸을 피곤하게 했다. 보는 건 별로 없고 따뜻한 날씨가 갑자기 차가운 바람도 불고 날씨마저 오락가락했다. 직접 와서 발표를 들으니 더욱 집중되고 신선했다. 하지만 너무 빡빡한 일정에 구경도 별로 못하고 발표만 하고 가니 아쉬움이 컸다.

다음날 한산도를 가기위해 큰 배를 탔다. 바람이 상쾌했다. 아름다운 작은 섬들과 따사로운 햇빛은 우리를 반기는 듯 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몸은 상당히 피곤했다. 배안에서 잠을 청한다. 시끄러워서 그마저 힘들었다. 한산도를 갔다. 남망산에 갔는데 화장실에 내가 아끼던 시계를 놔두고 왔다. 다음 일정으로 갈 때 내가 시계를 잃어 버렸다는 걸 느꼈다. 정신없이 내려 택시를 타고 통영 시내를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보던 것 보다 좋았다. 혼자 여행와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계를 찾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갔는데 흥미로웠다.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신기한 것도 많았다.

마지막 날밤 술이 흥건히 취했다. 피곤했지만 통영의 화이트를 마시며 피로를 풀었다.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간다니 왠지 아쉬웠다. 마지막 날 구지봉에 갔다 빡빡한 일정으로 자세히는 보지는 못하고 다음 장소로 가기가 일수였다. 김중직 생가에 갔을 땐 좋았다. 저번 학기에 김중직에 대하여 발표를 했기에 제일 관심 있게 발표를 듣고 주위 환경도 자세히 보았다. 시간관계상 다는 못 봤지만 흥미로웠다. 이제 춘천으로 간다. 아쉬움이 많다. 빨리빨리

보고 지나간 것이 가장 아쉬웠지만 즐거웠다.

탐방이 얼마나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인지 알게 해주었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자세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곤하지만 진짜 추억이 남는 탐방이었다. 다들 아무도 큰 사고 없이 춘천에 돌아오게 돼서 무엇 보다 기뻐다.

한국 문학 탐방을 다녀와서..

20071134 조성아

2007년 4월4일 새벽. 한 달 전부터 기다려온 문학탐방을 가는 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 들뜬 기분으로 학교로 향했다. 인원체크를 하고 드디어 출발. 남쪽으로 내려가는 내내 잠만 자서 바깥 구경은 잘 하지 못했다.

버스에서의 긴 잠이 끝나고 도착한 곳은 해인사. 최치원의 흔적을 보기 위해 들른 곳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계곡에서 사진도 찍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산청 휴게소로 갔다. 돌솥비빔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단속사. 신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진주성으로 갔다. 논개가 뛰어내린 의암을 구경했는데, 옆이 바로 낭떠러지여서 정말 아찔했다. 다음은 이형기의 낙화 시비를 보러 신안동 녹지공원으로 갔다. 시비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첫째 날의 일정이 끝나고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탐방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암을 등반했다. 올라가는 내내 힘들고 더웠지만 올라가서 경치를 바라보니 정말 힘든 것들이 싹 사라졌다. 원래 보려고 한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는 전 날의 피로를 싹 풀어주었다. 아침을 먹고 배를 타고 김만중의 유배지였던 노도로 향했다. 그런 배는 처음 타는 거였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사천시에 도착. 박재삼의 시비를 구경했다. 그 곳에서 중식을 먹고 다솔사에서 김동리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통영에 도착했다. 유치환의 <행복> 시비가 있는 통영중앙동우체국을 구경하고 둘째 밤을 통영숙소에서 보냈다.

탐방 셋째 날. 아침부터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다. 아침에 배를 타니 더 상쾌했다. 한산도에 가서 제송당에 도착 이순신의 대한 발표를 듣고 청마문학관으로 갔다. 청마문학관 구경 후 김춘수의 꽃 시비를 보러 갔다. 중식을 먹고 간 곳은 거제도.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최인훈의 '광장'의 배경이 되었던 곳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포로들의 생활상과 고통들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다시 통영 숙소로 돌아와 탐방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탐방 마지막 날. 통영을 출발해 김해로 갔다. 수로 왕비릉을 보고 밀양으로갔다. 김종직의 생가를 구경한 뒤 중식을 먹고 버스를 타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왔다.

탐방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문학작품속의 배경지들과 그 작가의 집 등을 돌아보면서 그 작가와 문학작품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의 기분을 다시 느낀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 문학 탐방 때도 참가해서 이런 기분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싶다.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71135 조영재

내가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난다. “너희가 대학교가서 혹시라도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답사를 갈 텐데, 하루 종일 차로 이동하고 힘들지만 재미있을 꺼다.”라는 말씀이 말이다. 그 땐 그냥 “아~ 그렇구나.”하고 말았는데 막상 지금 내가 이렇게 다녀와서 기행문을 쓰고 있으니 정말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를 해야 했다. 7시 10분이 집합이기에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출발해 홍류문에 도착, 최치원의 노후를 보냈다는 곳을 가 ‘제가야산독서당’을 감상했는데 정말 그 때 들리던 물소리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주위 풍경도 좋고 물소리에 밖의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정말 환상의 장소였다. 나도 나중에 늙어서 그런 곳에서 보냈으면 했을 정도였다.

그 후 휴게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신촌의 ‘원가’와 조식의 ‘단속사수종매’의 발표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꽃이 다 져서 안타까웠다. 교수님께서 극찬을 하시는 꽃이었었는데 말이다.

다음으로는 진주성에 도착하여 ‘논개’ 발표를 들었는데 그 때가 내가 이번 탐방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다. 그냥 집에서 논개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냥 별 감흥이 없었는데 막상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 ‘논개’ 발표를 들으니 “내가 정말 탐방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크게 감동을 받고 ‘낙화’ 시비가 있는 녹지공원에 갔는데, 아파트촌 한가운데에 있는 시비를 보고 아까 받았던 감동이 많이 희석되었다. 이런 곳에 시비가 있다는 걸보니 정말 실망이 절로 나왔다. 난 그 시비를 다른 곳에 옮겼으면 한다.

그렇게 바쁜 첫 날을 보내고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 일찍 보리암 등반을 했는데, 나는 늦잠을 자서 버스를 놓쳤다가 다시 버스가 돌아줘서 간신히 등반하였다. 보리암 등반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계속 잠이나 잘걸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리암에 올라가고 나니 정말 개운하고 뿌듯한 게 즐거웠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시간이 부족해서 정상을 못 밟아본 것이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정상을 밟으면 되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하였다.

식사 후 시냇말로 통통배를 타고 노도에 가서 김만중 유배지를 봤는데 허묘에 올라갔다가 그냥 비석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실망하였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허묘에서 내려가 유배 생활했던 집을 복원한 장소에서 발표를 듣고 다시 통통배를 타고 돌아와 다솔사로 이동하였다.

다솔사에서 김동리의 ‘바위’, ‘등신불’ 발표 후 이동하여 통영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중앙동우체국에서 유치환의 ‘행복’ 시비도 보고 유치환의 사랑이야기도 그 곳에서 직접 그 장소를 보고 느끼니 확 와 닿았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끝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절반에 일정의 끝을 알렸다.

다시 아침에 일어나 여객선을 타고 한산도에 도착했다. 그 곳에 수루에 올라가 이순신의 시조 한 수를 감상했는데, 아마 뒤에 관람했던 남망산만 아니었다면 탐방일정에서 최고의 멋진 풍경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남망산! 여긴 정말 풍경이 최고였다. 거기서 유치환의 ‘바위’ 시비와 김춘수의 ‘꽃’ 시비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문학도 보고 최고의 풍경도 보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최고였다.

그 뒤로 간 곳은 거제포로수용소였는데 이곳은 가장 재미있었던 곳으로 기억한다. 거기서 우리는 6.25전쟁의 비참함과 포로들 간의 전쟁도 체험하였다. 지금까지 갔다 왔던 곳과는 다르게 디스플레이 화면도 많고 눈과 귀를 현혹하는 소리와 생생한 재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었다. 관람 후 우린 해수욕장으로 가서 일몰을 관람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일러서 관람하지 못하고 숙소로 들어가 비록 내일 일정이 있지만 만찬 및 평가회를 하였다. 그 때 만찬은 짝짱한 재정 상황에서도,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마지막 날, 우리는 김해에 도착하여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을 관람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수로왕릉은 그냥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고 수로왕비릉과 구지봉을 봤는데, 처음엔 구지봉이라고 해서 또 힘들게 올라갈까 걱정했는데 구지봉은 정말 낮아서 내 생각을 켜다. 구지봉 옆에는 고인돌도 있었고 위에 멋지게 한문도 쓰여 있었는데 그건 한석봉이 썼다고 전해진다.

김종직 생가는 관리가 소홀해 잡초가 무성했다. 이런 유적이 관리가 소홀한게 한편으로는 나를 반성케 하였다. 그 곳에서 마지막으로 단체사진도 찍고 난 뒤,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정말 두부가 고소한 게 최고였다.

식사를 마치고 표충사를 관람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으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서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정말 즐겁게 즐기고 우리는 버스에 올라 춘천을 향해 달려갔다. 다들 피곤했는지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탐방 참여한 사람들이 수면을 취했다.

이렇게 재미있게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한국문학탐방. 아쉬운 점도 있었다. 짧은 일정에 많은 것을 관람하려고해서 시간에 쫓겨 충분히 관람을 못 한게 아쉽다. 하지만 충분히 재미있었고 내 발로 직접 우리 한국문학의 유적지를 살펴보니, 보람도 있고 뿌듯하였다. 나중에도 또 한 번 참가하고 싶다. 신입생이라서 어수룩했지만 다음엔 고학년으로써 제대로 관람할 것이다.

한국 문학 탐방 답사 후기

20021170 정한별

살아간다는 것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배움은 책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자연의 품안에서 직접 부딪치며 오감을 이용해 느껴야만 하는 것도 있다. 이번 [한국 문학 탐방]시간이 꼭 그랬다.

우선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농산정’. 이 근방은 ‘최치원’이 은거하던 곳이라 하였다. 한참 건조한 계절이라 계곡의 수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물줄기가 체법 세웠다. 과연 ‘제가야산독서당’에도 언급이 되었듯, 이곳에서 지내고 있으면 속세의 난잡한 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또한 그 광경은 아무리 감정이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로 시구질이 터져 나오게 할 만큼 장관이었다. 하물며 ‘치원’은 어떠했으랴?

다음은 ‘진주성’에서 만난 ‘논개’가 기억에 남는다. 주변 환경 상, ‘정말 의암에서 빠져 죽었을까?’하며 나름의 추리를 펴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조그마한 사당 안에 단아하면서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녀의 영정이 있었다. 오죽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사당. 하지만 그 분위기에 압도돼 본능적으로 향을 쫓고 묵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여걸이십니다.’ 참 많은 얘기를 건네었다.

또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장소를 꼽으라면 ‘통영 우체국’이 있다. ‘이문당 서점’ 건너편, 뛰어간다면 단숨에 닿을 거리에 있음에도, 몰래 숨죽여 봐야만했고 끝내 솟구치는 감정을 전하지 못해 편지로나마 대신해야 했던 그 안타까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치환,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인지, 애착이 갔던 ‘구지봉’을 꼽을 수 있다. ‘수로왕비릉’이 있고, 그 낮은 능선을 따라가면 쉽사리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구지봉’. 신화에 의하면 여기서 ‘김수로왕’이 알로 생겨났다는데, 생각보다 봉우리가 낮은 감이 들어 조금 실망하였다. 하지만 ‘석장승’은 꽤나 흥미로운 것이었다. 듣던 대로 거북의 머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하며, 남성의 성기를 닮은 것이 참 기묘하게도 생겼다. 그리고 이 둘 하나로 인해 참 많은 논문거리가 발생했을 것을 생각해보니 웬지 웃음이 나왔다.

이번 ‘한국 문학 탐방 답사’기간 동안, 첫 목적지인 ‘가야산 홍류동’부터, 도중에 일정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마지막 목적지였던 ‘표충사’까지, 3박 4일간의 길다면 긴 여정 속에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체험할 수 가 있었다. ‘답사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이번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난 이런 반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단순히 ‘여행정도?’라는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답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면서부터,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직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지금의 나에게 ‘넌 무엇을 얻어 왔니?’라고 묻는다면 ‘그들을 느낄 수 있었기에 좋았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일정을 소화하기엔 너무나 빠빠한 것이었다. 후에는 답사할 장소를 조금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시간만 허락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탐방 후기

20071137 지소현

대학에 들어오면 우선 공부,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그리고 여행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안고 입학했다. 그런데 마침 수강신청 할 때 한국문화탐방이라는 과목을 보고 주저 없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한국문화탐방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구지가의 유적’을 조사하게 되면서 서툴러 잘하지 못해 조장 오빠에게 미안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새내기 때 첫 여행으로 교수님과 선배님 그리고 07친구들과 함께 3박4일 동안 경남 남부지역으로 한국문화탐방을 다녀왔다.

4월 4일, 그 전날 황사가 심해 4일 동안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최치원의 은거지인 가야산에 도착했다. 4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이기도 했다. 길에는 나무들이 연둣빛 나뭇잎으로 입고 계곡은 시원한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최치원의 시인‘제가야산독서당’을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었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밥이 괜찮아서 좋았다. 그리고 조식의 산천재에 갔다 집 앞에 매화꽃이 이쁘다고 들어서 내심 기대하고 갔는데 꽃은 다 지고 일만 무성했다. 아쉬운 발거름으로 번영로의 ‘논개’ 시비에 갔다. 논개의 시비보다 더 내눈길을 끌어 당긴건 바위 덩어리인 ‘의암’을 보았다. 진주성 축석루 암벽 아래 남강 물속에 있는 바위 인데 임진왜란 때 논개가 이 바위에서 왜장을 껴안고 몸을 던졌다고 한다. 정말이지 논개의 우국충절을 느낄 수 있었다. 첫날의 마지막 장소 이형기의 ‘낙화’ 시비에 갔는데 아파트 단지 공원에 조금 쓸쓸해 보이게 서 있었다. 그렇게 첫날의 여행을 마치고 바다가 보이는 여관을 갔다. 째짖한 바다냄새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아직도 잊을수 없다.

4월 5일, 새벽부터 일정이 있었는데 빈혈이 있는 나에게 조금 어려운 등산이 있었다. 난 어쩔 수 없이 아침까지 늦잠을 자고 바다도 보러가고 벚꽃과 함께 사진도 찍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아침을 먹고 김만중에 유배지인 노도를 가는데 통통배를 타고 노도로 이동해야 했다. 동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섬들이 많았다. 유배지여서 그런지 걸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끝이 없었다. 허모 터에는 그냥 돌덩이보고 유배지 집터는 너무 단란했다. 유배되어 3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데, 아마도 먹을 것도 없고 답답해서 죽었을 것 같았다. 밥을 먹고 다음에 찾아 간곳은 박재삼 ‘천년의 바람’ 시비가 있는 노산공원을 찾았다. 거기 도 바다와 솔바람이 마음에 가라앉은 나의 봄기운을 흔들어 놓았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다솔사에 갔다. 여기는 김동리 작가가 ‘등신불’과 ‘바위’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통영에 도착해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주 배경지인 세병관을 갔고 유치환의 ‘행복’ 시비에 갔는데 그 시비 또한 그냥 길가에 우체국 앞에 있었다. 그렇게 또 이일째 밤은 깊어갔다.

4월 6일, 아침 일찍 여객선을 타고 한산도로 가야했다. 한산도라하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크게 무찌른 그 곳 교과서에서만 사진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했던 곳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 위해 가는 날이다. 한산도에 도착해 20분쯤 걸어서 제승당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참배도하고 이순신 장군이 제승당에 서서 나라를 걱정한 모습을 생각하니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조식을 먹고 청마 문학관을 가서 유치환의 전시실과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다음으로 난망산에 올라 유치환의 ‘바위’와 김춘수의 ‘꽃’ 시비를 보았는데 거기에 벚꽃도 날리고 바

다도 보였다. 여긴 어딜가나 바다가 보여 바다를 일년에 한번 보는 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중식을 먹은 뒤 거제포로수용소에 갔다. 최인훈의 ‘광장’의 포로수용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광장’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금강에 갔는데 내가 생각 했던거와는 확실히 달랐다. 난 바다라도 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보고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건물 만 있었는데... 거기가 해금강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나서 해수욕장가서 남자선배님과 07친구들이 닭싸움하고 사진도 찍고 재미있었다. 그렇게 3일째 일정도 끝냈다. 그리고 식당에 모여 평가회를 하는데 3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아쉽기도 했고 무언가 얻어가는 거 같아 기분이 묘했다.

4월 7일, 문화탐방의 마지막 날 내가 조사했던 ‘구지가의 유적’을 조사했는데 가보니까 사진보다 더 멋있고 볼거리도 많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자세하게 조사했으면 자료집 보는 선배님과 친구들이 더 쉽게 알 수있었을 텐데... 미안하고 아쉬웠다. 다음으로 예림서원에 갔다. 그리고 중식을 먹고 표충사에 가서 투호도 하고 제기차기도하고 민속놀이를 했다.

3박4일 동안 좋은사람들과 좋은 곳을 여행해서 더 없이 좋은 여행이다.

마지막 답사를 마치며

20041138 박유미

4학년이 돼서야 답사를 처음가게 되었다. 3박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녀오는 답사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다. 처음부터 이걸 여행이아니라 배우러 간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짜여진 일정표만 봐도 결코 널널하지 않은 답사가 될 꺼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논개사당이 있는 곳이었다.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뛰어내렸던 곳에 서 있자나 웬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졌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마음이 묘했다. 사진 찍기 위해 서있기도 힘든 곳 인데 막상 이렇게 직접 와봐야 가슴에 더 깊게 남는가보다. 그다음은 낙화 시비가 있는 곳에 갔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하며 도로하며 이런에 이런 시비가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시의 시비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은 좋았다.

둘째 날의 일정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감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던 보리암 등반은 이번 답사에서 가장 아쉬운 일정이었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었지 올라갔을 때의 그 모습은 안보면 후회 했을꺼 라는 친구들의 말이며 담아온 사진에서 후회가 밀려왔다.

그런 아쉬움도 잠시 노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갔다. 배를 타고 잠깐 가면 작은 섬 노도가 나왔다. 더운 날씨에 올라가느라 힘들었지만 노도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다. 바다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색이 바뀐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실로 와 닿았다. 바다냄새도 좋았고 바다 색깔도 좋아서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다.

셋째 날 아침에는 한산도를 찾았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배를 타고 간 한산도는 한적하고 적막했다. 그곳에서 제승당에 도착 하였을 때는 옆 사람과 잡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해지고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거제포로수용소에는 꽤 많은 시간 동안 둘러 볼 수 있었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실감나게 지어졌다. 여기저기에서 사진 찍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 사실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땐 그럴 곳이 아니었다. 그땐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바빴지 그곳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아픔이 많고 처절했던 곳인데 너무 흥미롭게만 다녀본 것에 후회를 느낀다.

마지막 날은 우리조가 발표준비를 맡은 김종직의 생가에 들렀다. 내가 준비하고 미리 공부를 해왔던 곳이기에 다른 곳보다는 더 애착이 간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후염 때문에 직접 발표를 하지는 못했지만 웬지 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낯설지가 않았다. 이래서 교수님이 발표준비를 시키고 자료정리를 시키셨나보다. 그냥 둘러보는 것은 그냥 여행이 될 뿐이지만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공부하고 내가 공부한 것을 직접 그곳에 가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답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을 진작에 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 후회되었지만 마지막에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답사보다 더 멋진 추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름다웠던 풍경과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던 날씨에 함께했던 답사였다.

꽃이 피고 꽃이 진다.

2061108 김은경

꽃이 핀다.
설레임과 반가움을 안고
꽃이 핀다.

햇빛이 너무 좋아 흔들고,
지나는 행인보고 안녕하며 흔들고,
따뜻한 봄바람에 신이 나서 흔들다.

흔들다.. 흔들리다.. 흔들린다...

흔들다 보니
작별의 시간이 성큼 찾아와버렸다.

아쉬운 마음에 흔들고,
이제 안녕이라 흔들고,
다음에 또 보자고 흔들다.

꽃이 진다.
아쉬움과 추억을 흠뻑 담고
꽃이 진다.

한국 문학 탐방을 다녀와서

20071138 최그림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전공과목 중에 문학탐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강신청을 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탐방 날이 되었다. 남해 쪽으로는 처음 가는 거라서 가는 내내 들떴었다.

처음에 간 곳은 해인사였다. 해인사는 나에게 조금 특별했다. 왜냐하면 나의 조상인 최치원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이다. 몇 자 안 남았지만 바위에 쓰여진 시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계곡 소리를 들으면서 조상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인사에서 발표를 마치고 산천재와 단속사를 지나 진주 축석루로 갔다. 축석루에서 왜장을 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을 논개를 생각하니 웬지 강물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축석루를 나와 도착한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시비였다. 발표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후 숙소로 갔다.

다음날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리암을 올랐다. 오르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산에서 내려와 밥을 먹고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로 갔다. 춘천은 아직도 쌀쌀한데 노도는 벌써 꽃이 피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라면 나도 시가 절로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박재삼의 삼천포를 지나 김동리의 다술사를 갔다가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인 박경리의 세병관으로 갔다. 내가 사는 원주에는 박경리의 토지문학관이 있는데 그곳도 가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유지환의 행복의 배경인 통영우체국을 갔다. 바로 앞에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나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날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갔다.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작은 섬이라 조용하고 한적했다.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보고 묵념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유지환의 청마문학관으로 갔다. 유지환의 자필원서와 오래된 시집을 보니 신기했다. 다음은 남망산을 지나 거제포로 수용소로 갔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인훈의 ‘광장’이 배경인 곳이라고 했다. 포로수용소의 모형들과 사진들을 보니 6.25전쟁의 아픔과 공포가 느껴졌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해금강이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잠시 놀면서 휴식을 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거제청마유적으로 갔다. 저녁에는 평가회가 있었는데 모두들 지켜보였지만 얻은 것도 많아 즐거워 보였다. 나 역시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아쉬움과 더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다.

다음날 처음으로 간 곳은 수로왕릉과 ‘구지가’가 지어진 구지봉이었다. 다음은 내가 조사한 김종직의 생가였다. 발표를 하진 못했지만 거기 있는 동안 내내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영남루였는데 거기서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촉박해서 들리지 못한 곳들도 있었다. 아마 우리가 빨리빨리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아쉽긴 하지만 다음 답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3박 4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우고 느낀 것은 많은 것 같다. 대학교 들어온 이후로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 이 문학작품들을 볼 때면 우리가 가본 장소와 추억이 생각나고 아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탐방을 다녀와서

20071141 한소영

한국문학탐방 기행문을 쓰려고 펜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쉬어가기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몸은 피로하고 지쳐있었으면서 정말 잘 쉬고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여행은 처음이다. 입학 후 정신없는 생활에 적응하느라 3월에 여행을 다녀오지 못하여 한없이 후회 중이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여 대학에 오면 한 달에 한번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3박4일 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 것 같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동했던 탓에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을 느끼기보다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던 시간이 많았다.

탐방기간 동안 설레고 기분 좋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날씨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항상 놀러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날씨가 좋지 않아 즐거운 소풍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인지 신나고 들떠 있었다. 춘천은 아직 쌀쌀한 날씨였기에 봄은 구경도 못하고 바로 여름이오면 어찌나 생각했는데 경상남도를 돌아다니면서 봄을 맞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어서 제일 좋았다.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팬스레 즐겁게 만든다. 오래된 친구와 같이 있는 기분이다.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새우깡을 던져주면 모여드는 갈매기들이 예뻐 보였다.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가서 바라보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쓸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아쉬움이 있다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좀 더 자연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자유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도 말이다.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마음은 풍요롭고 편히 쉬었던 탐방은 내년에도 또 온다면 지금 느끼는 것 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늘에 가까이 올라도 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수많은 별들에 설렘던 탐방이었다.